

HUMANISM

ESTHETIC

LEADERSHIP

PROGRESSIVE SPIRIT

EXCELLENCE

RESPONSIBILITY

STEWARDSHIP

KYUNG HEE DENTAL SCHOOL NEWSLETTER



VOL. 15 (2020. 03 ~ 2021. 02)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02	VISION
03	HELPERS 비전과 목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인사말
04	SPECIAL REPORT 퇴임교수님 특집
10	NEWS
13	학교 소식 교실 소식
18	FOCUS 해외 탐방
20	RESEARCH FOCUS I
22	황유식 교수 권일근 교수
24	RESEARCH FOCUS II 권용대 교수
26	PEOPLE
31	신임교원 인터뷰 동문 소식과 발전기금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el. 02-961-0341~2 E-mail. khsc0800@khu.ac.kr

<http://dental.khu.ac.kr>

최근 국내외 대학들은 스스로의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단합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가치를 마련하고자 이전까지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수정, 보완 하면서 비전을 '존경하는 글로벌 치과의 양성'(Global eminence founded on professionalism and respect in oral health and science)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경희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로서 Global Eminence를 치의학 분야에서 치과의사로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확고한 역량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환자와의 상호간에 존경을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s)로서 Humanism(인본주의), Esthetic(개성과 조화), Leadership(지도력), Progressive spirit(진취성), Excellence(우수성), Responsibility(책임감), Stewardship(봉사정신) 등의 7개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HELPERS라는 로고로 완성하였다. HELPERS는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의 치과 의사로서의 성장 발전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동문 나아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우리의 전통으로서 가꾸어 가야 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의 힘찬 도약을 위해 "Let's go Global HELPERS!"

**교육목적** 우수한 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치과 임상 의 및 치의학 연구자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치의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목표**
1. 치의학 제반 질환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2.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태도를 기른다.
  3. 환자와 사회에 대한 치과의사로서 책임감과 윤리관, 인간성을 함양한다.



## 국내외적으로 학교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약진하는 치과대학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야



치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치과대학장 정종혁

안녕하십니까?  
 제16대 치과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정종혁입니다. HELPERS 15호를 발간하면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소식과 함께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아직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차 상황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한동안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큰 혼란이 있었지만 많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체계를 잡으면서 점차 안정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그 동안 국내외 대학 가운데 명문으로 인정받기 위해 연구, 교육, 대외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십 년 동안 여러 기관 평가를 통해 노력들의 결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세계 대학 평가 (평가기관: THE, QS, CWUR)에서 전세계에서 200위권, 국내 종합대학 중 5위권으로 매년 위상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치과대학도 현재의 위상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코로나라는 최악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동안 Andalas 대학, Mahidol 대학, 모로코의 Mohammed VI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Mohammed VI 와 새로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Universiti Teknologi Mara, Malaysia 대학과 업무 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Osaka 대학, Ohu 대학, 독일 Mainz 대학, Kagoshima 대학, Tohoku 대학과 인터넷 국제교류를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 치과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를 꾀함으로써 위상 제고를 위한 구성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치과대학의 구성원인 우리는, 우리 대학에 대하여 역사가 있는 학교, 열성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 그리고 구성원들의 유대감이 강한 학교 같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입생의 입학성적, 치의학 교육 인증평가 결과, 국가고시 합격률, 교수 연구실적, 그리고 외부 평가기관의 대학평가 순위 등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요소들에 대해 학교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치의학교육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치의학 교육 인증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과 임상실습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고 이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치평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의학교육 인증평가는 각 치과대학의 교육내용을 검토하고 정상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학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평가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 예정된 치평원의 방문 평가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본과 4학년들의 국가시험에 임상술기시험이 추가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에서는 임상실습실과 최신 실습용 마네킹과 장비들을 구비하여 각 과별로 임상술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내생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원내생 진료를 홍보하고 있으며 원내생들에게 임상술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은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문들에게 더 다가가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동문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평생교육프로그램 확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부모처럼 기댈 수 있는 모교가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의 발전을 통해 우리 구성원들 모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교수, 학생, 학부모, 동문 여러분들이 공통된 목표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은다면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제16대 치과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정종혁

##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안녕하십니까 3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며 경희대학교와 새롭게 인연을 맺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들었던 경희대학교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오신 소아치과학 교실 김광철 교수님과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실 류동목 교수님, 안면통증구강내과학 교실 홍정표 교수님, 치과재료학 교실 임호남 교수님께서 2021년 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교육, 연구, 봉사'라는 교수의 이념과 본분을 묵묵히 실천하신 네 분 교수님을 만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를 들어 보았습니다.

### 김 광 철 교수님



하셨습니다. 그때가 본과 2학년이었는데 나의 소아치과의 인연은 그때 이미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때의 여자 친구는 지금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Q 첫 부임 받으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는지?**

그토록 되고 싶은 교수가 되어 뭘 듯이 기뻐했으며 소아치과와 치과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이 한 몸을 다 바쳐보리라 결심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무엇보다도 훌륭한 제자를 키우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하여 교육을 위해서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매정하게 그러나 속마음은 따뜻하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Q 학교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제자가 있으신가요?**

치과대학 27회 학생들의 예과 졸업여행을 학년 담임 교수로 함께 다녀온 일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속초 일대를 다녀왔는데 그 당시 강원도 지역에서 개원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후배 학생들이 왔다고 하여 좋은 호텔에서 거나한 저녁 만찬을 베풀어 주었어요. 다들 잘 먹고 과음한 상태로 용평 숙소로 이동하려고 아흔아홉 구비 대관령을 넘어오다, 한 학생이 버스 안에다 그만 먹은 것을 다 \*\*\*\*를 했어요. 그 순간 버스 기사님의 안색이 확 변한 것을 보았는데 '아,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버스가 도착하고 학생들이 다 내린 후에 청소도구를 달라고 하여 열심히 한참 동안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사이 팔짱을 끼고 바라만 보고 있던 기사님이 오히려 미안한 얼굴로 다가와 나머지는 자기가 하겠으니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을 돌보러 올라가시라고 하여 위기를 모면한 기억이 가장 큰 에피소드로 남네요. 그 제자 이름은 "K"모 군.

**Q 경희대학교는 어떤 의미이신지?**

나에게 있어 경희대학교는 그림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밝거나 어둡거나 심지어 빛이 없으나 치더라도 마음에 있는 나의 그림자는 늘 나와 함께 합니다. 경희대학교와 처음 인연을 맺은 지 햇수로 48년, 그 지나간 세월 함께 하는 동안 경희대학 없이는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없고 심지어 정년퇴임을 하고 이 세상을 다하는 날까지 언제나 그림자와 같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Q 소아치과학을 전공하시게 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대학교 1학년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 사귀기 시작한 여자 친구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녀를 통하여 어린 이들의 특성에 대해 많이 듣게 되어 자연히 소아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 때마침 치과대학 취미 동아리인 연극부 지도교수로 소아치과 이궁호 교수님께서 부임

**Q 평소에 여가 시간이나 휴일은 어떻게 즐기시는지요? 후배들에게 추천해 주실만한 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을까요?**

그동안 여가시간에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특정한 것 한 두 가지만 아니라 참 다양하게 해 본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영화 감상에 빠져 개봉하는 영화는 빠짐없이 보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떤 어느 순간부터는 특정 작가의 책에 심취하여 독서에 열을 올렸다가 때로는 헬스에 때로는 온천장 돌아다니기 등 여러 가지로 즐긴 것 같아요. 요즘은 운동 그중에서도 골프에 심취해 있어요. 스트레스를 해소법으로는 옛 선조들이 거닐던 고궁을 아무런 생각을 말고 천천히 걸어 보기.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평생 내 일하느라고 옆도 안 돌아보고 오로지 전진만 했

던 인생을 살았기에 이제는 가정에 충실하여 평생 군소리 없이 묵묵히 나를 내조해온 아내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감염병 상황이 종식되면 전국에서 계절마다 열리는 매화 축제, 산수유 축제, 벚꽃 축제, 철쭉 축제, 연꽃 축제, 단풍 축제, 눈꽃 축제 등을 다 찾아다닐 예정이에요.

**Q 학교와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당위성에 관하여 많은 깊은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옳은 일일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더욱 옳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주저 말고 행동에 옮길 것을 권합니다.

### 류 동 목 교수님



**Q 구강악안면외과학을 전공하시게 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학생 시절 WBM 동아리를 했었어요. 교수님들께서 강의실에서 강의하실 때도 영향을 받지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교수님들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장기진료를 하게 되면 구강악안면외과 이상철 교수님께서 같이 오셔서 지내 주시고, 진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또 그 이후로도 그분의 강의를 듣고 진료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분 밑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Q 첫 부임 받으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는지?**

전임의 3년을 하고 발령을 받긴 했는데요. 부산에서 군대 제대하고 서울 올라온 전임의 발령 자체가 첫 부임 받은 느낌이었다고 볼 수 있죠. 전임의 정원이 없을 거 같아서 부산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할 수 있는 종합병원 취직자리도 알아보고 했어요. 제대하기 전 10월쯤 종합학술대회에서 이상철 교수님께서 부르시더니 전임의 정원이 날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상 전임의 정원이 안 나와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어요. 4월 초쯤 드디어 정원이 나와서 부랴 부랴 서울에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비록 전임의지만 이제 이상철 교수님 밑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임의 3년이 지나고 학위 마치고 그쯤 치과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우리 학교 교수 숫자가 너무 적다고 증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

**Q 경희대학교는 어떤 의미이신지?**

경희대를 빼고는 저를 생각할 수가 없네요. 19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온 이후로 군대에 있었던 3년 이외에는 학교 다니고, 수련 생활하고 그 이후로 졸업 경희대 울타리에 있었네요.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들이지만 치과 의사로서 치과대학 교수로서 일하게 해주고 성장시켜 준 것은 경희대학교입니다.

물론 학교에 대한 불만이 왜 없겠어요? 그런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자식이 부모님 말씀에 100% 다 마음에 들지는 않듯이 그런 차원이죠. 나에게서는 부모님과 같은 나를 있게 해준 존재라고 생각해요.

요. 그래서 그 덕분인지 그즈음에 많은 동기가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운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Q 학교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제자가 있으신가요?**

누구 기억나는 사람 한 명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는? 이라고 할 거라 이름을 밝히긴 그렇지만 내가 별로 해준 거도 없는데, 날 좋아해 주는 후배들이 몇몇 있는데 그 사람들 이랑 같이 비슷하게 나이가 들면서 산에도 같이 가고 하는 그런 멤버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 있는 거 자체가 진짜 고맙고 좋고 나이 들어 사람들이랑 재미있게 잘 지내는 게 가장 남는 거 같아요.

**Q 평소에 여가 시간이나 휴일은 어떻게 즐기시나요? 후배들에게 추천해 주실만한 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을까요?**

예전에 산에 열심히 다녔어요. 백두대간을 다 다녀본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취미가 없는 사람들이 산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무릎도 무리도 가고 해서 등산보다는 둘레길 산책 3시간 정도 하고, 내려오면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게 좋아요. 음악은 틀어놓으면 시끄럽진 않고 좋긴 한데 크게 조예는 없고, 로마네스카(강동경희대병원 클래식 음악 동호회) 가기도 했는데 항상 점심 식사 후에 모임을 해서 가면 자곤 했어요. 스트레스는 사람의 개인적 특성이 있는 거 같아요. 난 스트레스를 잘 삭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람들한테서 오는 스트레스는 내가 좀 접어주고 양보

하면 되고, 일이나 환자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열심히 일해서 어서 그 환자나 일을 해결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하는 것 같아요.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강동구에서 개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진료를 옮겨 베이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해 왔던 익숙한 발치, 임플란트, TMJ관련 질환 환자가 오면 자신 있게 진료를 할 텐데 나머지는 익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모든 게 완벽하게 보장되고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큰 기업도 하루하루가 위기에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고,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게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Q 학교와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유, 자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와 학생 모두 마찬가지인데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적 독립이 힘들니 자율성을 발휘하기 힘든 거 같아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개개인들이 최대한 자율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경희학원의 교훈인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가 잘 실천되면 좋을 것 같아요.



## 홍정표 교수님



**Q 구강 내과를 전공하게 되신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학부 때 배우지 못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구강병리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교수 발령을 받았을 때는 구강내과가 없고 구강진단과가 있었으며, 병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조직과 병을 강의할 수 있겠다는 이유로 구강 해부학교실 주임교수로 발령을 받아 구강 조직학과 구강진단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년 후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마침 구강 병리와 구강 내과를 함께 연구하는 곳에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구강 내과를 공부하고, 그러던 와중 신제원 교수가 해부학 교실로 발령이 나면서 저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며 자연스럽게 조직 병리에서 임상 병리로 바꾸며 구강 내과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구강 내과에서 주로 연구하던 영역이 턱관절 질환-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TMD)였어요. 하지만, 초기에는 TMD의 원인이 교합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었고, 저는 교합이 아닌 병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합에 의한 TMD를 연구하기보다는 구강 내과의 여러 병 자체를 공부하려 했죠. 하지만 이후에 학회에서 듣다 보니 아무리 봐도 TMD가 경조직 질환이 아닌 연조직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리학을 전공해서 연조직엔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교합에 저명하신 분들도 교합 장애가 TMD의 원인이 아니라 TMD의 부산물이라는 이론을 발표하며 어느 정도 제 생각에 힘이 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엔 교합을 전공하신 교수님들과 크고 작은 학문적인 갈등도 많았고,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기였어요.

이후 많은 TMD 환자를 보며, 연조직의 문제로 TMD가 생긴다면 TMD의 원인이 되는 그 연조직 질환은 왜 생기는지 궁금했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생리학적인 상태에선 근육에 지속적인 힘을 오랫동안 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떠한 원인에 의해 뇌에서 얼굴 주변 근육에 지속적으로 힘이 들어가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를 갈고, 악물게 만들어 근육 장애와 관절에 무리가 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뇌에서 병적인 명령을 내리도록 만드는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TMD 뿐만 아니라 구강 내 질환에 있어서도 그 원인과 치료에서 스트레스 관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 분야를 좀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어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2003년에 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고 지금까지도 그 공부를 이어오고 있죠.

이렇게 구강 병리로 시작해서 해부학, 구강 내과학, 심리학까지 여러 전공을 거치며 참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쳤네요.

**Q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첫 발령을 받게 된 1985년 당시, 경희대 치대 1회 졸업생 선배님이 교수로 발령된 후 제가 경희대 치대 8회로서 첫 발령을 받게 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경희대 출신 교수 충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막내 교수로 발령받은 후에 비로소 교수-학생 간 소통을 이루어 내어, 1989년부터 2-3년에 걸쳐 20명에 가까운 신입 교수가 충원이 되며 타 대학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참 뿌듯하고 보람된 순간이었어요.

또, 2000년도에 한 신문사에서 각 대학의 교수 등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설문 내용에는 여러 가지 질문 중 '자신의 가족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 설문에서 제가 선정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참 여러 가지 일로 힘든 순간이었는데, 주변분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이 참 큰 힘이 되고 보람을 느끼게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Q 제자이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강의 끝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좋은 치과의사'가 되라는 얘기에요. 훌륭한 치과의사도 좋지만 훌륭한 치과의사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되기 힘든 건 '좋은 치과의사'예요. 치과의사 사장님이 아닌

치과의사 선생님이 되어, 몸과 마음이 아파 아쉬움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꼭 되었으면 해요.

또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은 이미 정리가 된 학문을 가르쳐 주는 것이예요. '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정지된 개념이죠. 하지만 시대가 변해가고 발전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응용을 해야 해요. 학교에서 배운 그 학문을 바탕으로 응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개인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살아보니 행복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 요즘 사람들은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행복은 목표,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이 되어서 과정이 너무 힘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예요. 그 과정, 과정 자체가 행복해야 해요. 그래서 행복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행복해야 하고 그렇게 과정, 과정이 행

복하다 보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산악부 출신이라 히말라야를 세 번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도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히말라야에서 정상만을 바라보며 한걸음 한걸음 옮기면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참 고되고 힘들어요. 이렇게 정상에 오르면 행복할 것이라는 목적만을 생각하면 그 과정이 너무 고되고 행복하지 않죠. 하지만 한 걸음 한걸음을 즐기며 행복하게 걸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까지 도착해 있죠. 이렇게 모든 순간에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꼭 순간순간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을까요?**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며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를 있게 해주었던 경희시대 식구들과 함께 했었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커요. 모든 식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네요.

**임호남 교수님**



서 임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기초학 중에서도 치과재료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공하게 되었어요.

**Q 30년 정도 경희대 치과대학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제자가 있으신지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특별한 에피소드나 제자는 없네요. 하지만 30년을 경희치과대학에서 보내면서 특별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Q 평소에 여가시간이나 휴일은 어떻게 즐기시는지요?**

대학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일이 많다보니 따로 취미를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내적인 충만감을 위해서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면으로 취미부분도 개발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왜 좀 더 빨리 깨달지 못 했나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이것저것 저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에는 등산에 취미를 붙여보고 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오기 전에도 남산을 등산하고 왔답니다. 그리고 휴일이 되면 집사람과 함께 그동안 못 다녔던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Q 대학을 졸업하시고 기초학을, 그 중에서도 치과재료학을 전공하시게 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는 기초교수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임상과목보다는 기초과목을 전공해야 교수가 빨리 되겠다는 생각에 기초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치과대학은 기초과목보다는 임상과목이 탁월해야 학교의 위신이 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Q 후배 교수나 제자들에게 당부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앞서 말 한대로 너무 일반 하지 말고 자기만의 취미를 찾으려면 좋겠어요. 나이를 먹다보니 취미라는 건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서 논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또 다른 면을 알아가고 개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이나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올해 초에 퇴임하신 홍정표 교수님이나 류동목 교수님은 개원을 하시거나 지금도 진료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기초교수 중에 올해 퇴임을 앞두고 있는 김형찬 교수님도 임상을 연습하면서 개원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기초학을 공부하면서 임상학을 너무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곤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잘못하면 후배들이 기초과목을 전공하지 않을 것 같은데...(웃음)

아무튼 저는 임상보다는 기초를 하면 교수가 빨리 되겠다는 생각에 기초학을 전공했고, 임상하는 사람들 옆에서 도움을 주며 즐겁게 30년을 보냈는데, 요즘은 임상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후회되기는 해요. 과거에는 퇴임하면 쉬면서 말년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지 고민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퇴임을 해도 새로운 일을 찾는 것 같아요. 우선은 남들이 하는 대로 단순하게 따라가기 보다 30년간 열심히 일했던 부분에 대해 휴식을 취하면서 내가 원하는 퇴임 후의 삶은 어떤 삶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좋을지 생각해 보고 있어요.

**Q 앞으로 경희치과대학이나 경희치과대학 후배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학교에 몸을 담았다가 끝나고 나오게 된 사람 입장에서 경희치과대학과 병원이 우뚝 서는 게 가장 기다려지는 점

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보니 후배들이 임상과목이든 기초과목이든 학교에 많이 남았으면 해요. 요즘에는 대학의 연구역량으로 대학의 순위를 평가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수를 뽑다 보니 기초교수는 많이 증가했지만 자교 출신의 기초교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기초과목에서 자교 출신이 사라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곤 해요.

임상과목에서도 자교 출신 교수가 점점 줄고 있고,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남으려는 학생들도 점점 줄고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자교 출신으로만 채워지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 연구하고 공부하고 공직에 남으려는 분위기가 덜 한 것 같아요. 학교가 발전하고 병원이 크려면 임상이나 기초를 자교 출신 치과의사가 주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단순히 대학의 순위를 높이려 하기 보다 진실로 학교와 병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자를 늘리려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후배들도 치과과목을 배우고 연구하는데 흥미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분의 학생과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정년퇴임 인터뷰에서까지도 귀감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치과대학 발전의 역사를 이뤄주신 김광철 교수님, 류동목 교수님, 홍정표 교수님, 임호남 교수님의 공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수님들의 새로운 시작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학년도 교원 인사

**신임교수발령**

오소람 조교수(A) 2020.09.01. 일부  
이연희 조교수(A) 2020.09.01. 일부

**장기해외연수(연구년)**

치과재료학교실 권일근(2020.03.01.~2020.08.31.)  
악안면생체공학학교실 허정선(2020.03.01.~2021.02.28.)  
구강미생물학교실 문지희(2020.09.01.~2021.02.28.)

**재임용(2020.03.01.부)**

치과교정학교실 박기호 부교수  
치과보존학교실 장지현 조교수(A)  
치과보존학교실 이진규 조교수(A)  
치주과학교실 홍지연 조교수(A)

**재임용(2020.09.01.부)**

치주과학교실 신승일 부교수

**승진(2020.03.01.부)**

악안면생체공학학교실 황유식 부교수 → 교수  
치과교정학교실 강윤구 부교수 → 교수  
치과보철학교실 백장현 조교수(A) → 부교수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 윤형문 조교수(A) → 부교수

**정년퇴직(2021.02.28.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류동목 교수  
소아치과학교실 김광철 교수  
안면통증구강내과학교실 홍정표 교수  
치과재료학교실 임호남 교수



2020학년도 발전기금 전달식



· 일 시 : 2020.03.10. / 장 소 : 대학(원)장실  
· 기부자 : 김 은(티플러스치과) 동문



· 일 시 : 2020.03.24. / 장 소 : 대학(원)장실  
· 기부자 : 문형욱, 이근하, 이수현 동문



· 일 시 : 2020.09.24. / 장 소 : 대학(원)장실  
· 기부자 : 이주석(가인치과의원)



· 일 시 : 2020.12.02. / 장 소 : 대학(원)장실  
· 기부자 : 대한치주과학회



· 일 시 : 2020.12.10. / 장 소 : 대학(원)장실  
· 기부자 : 28회 동기회 일동



2020학년도 보직자 워크샵



· 일 시 : 2020.07.06.  
· 장 소 : 대학(원)장실

대한치과의사협회



· 일 시 : 2020.07.20. / 장 소 : 대학(원)장실  
· 기부자 : 대한치과의사협회의회-경희대학교치과대학 간담회

상반기 전체교수워크샵



· 일 시 : 2020.08.10.  
· 장 소 : 치과병원 지하강당

줌(zoom) 사용교육



· 일 시 : 2020.08.24.  
· 장 소 : 교수회의실

국시지원 쿠폰전달식



· 일 시 : 2020.10.28.  
· 장 소 : 치과병원 지하강당

정례교수회의



· 일 시 : 2020.11.10.  
· 장 소 : 치과병원 지하강당

발전관리위원회의



· 일 시 : 2020.11.18.  
· 장 소 : 대학(원)장실

총동문회 연구지원비 전달식



· 일 시 : 2020.12.22.  
· 장 소 : 대학(원)장실

총동문회 장학금 수여식



· 일 시 : 2020.12.22.  
· 장 소 : 대학(원)장실

기초학교실

구강생리학교실

■ 교실동정

- 2020년 8월, 여지희 선생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노대현 교수가 "Analgesic Efficacy of  $\alpha$  2 Adrenergic Receptor Agonists Depends on the Chronic State of Neuropathic Pain: Role of Regulator of G Protein Signaling 4, Neuroscience, 2021 Feb 10;455:177-194."의 내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 연구비 수주

- 노대현 교수가 주식회사 뉴라클제네틱스와 "Adeno associated viral(AAV) vector를 이용한 통증 억제 유전자 치료제의 효능 평가"의 내용으로 산학협동 연구과제를 수주하였다. (2020.05.01.~2021.04.30.)

구강미생물학교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Identification of Potential Oral Microbial Biomarkers for the Diagnosis of Periodontitis, J Clin Med. 2020 9(5): 1549 외 9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연구비 수주

- 문지희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2021.3.1 ~ 2025.2.28)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구강악안면생체공학교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Supplement of nitric oxide through calcium carbonate-based nanoparticles contributes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mouse embryonic stem cells, Tissue Cell. 2020 Oct;66:101390. 및 Physical and chemical factors influencing the printability of hydrogel-based extrusion bioinks, Chem. Rev. 2020, 120, 10834. 외 5편의 SCI논문을 발표하였다.  
- 2020년 7월 15일, 허정선 교수가 '라미나린을 포함하는 치주조직 기능 회복 및 치주조직 재생을 위한 조성물' 특허를 등록하였다.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

■ 교실동정

- 2020년 3월, 윤형문 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 2021년 01월, 윤형문 교수가 SCI(E) 국제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IF= 4.556), Special Issue 'Novel Extracellular and Intracellular Signalling Mechanisms in Bone 2.0'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논문 게재 8편/특허 출원 및 등록 4건  
- 윤형문 교수가 강상욱 교수와 공동교신저자로 2020년 12월, Effects of the amide alkaloid piperlyne on apoptosis, autophagy, and differentiation of pre-osteoblasts. Phytomedicine. 2020 Dec;79:153347, IF= 4.268, JCR 상위 7.14%, SCI(E) 논문 등 3편을 게재하였다.  
- 윤형문 교수가 교신저자로 2020년 7월, TMARg, a Novel Anthraquinone Isolated from Rubia cordifolia Nakai, Increases Osteogenesis and Mineralization through BMP2 and  $\beta$  -Catenin Signa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2020 Jul 27;21(15):5332. IF= 4.556, JCR 상위 24.91%, SCI(E) 논문 등 2편을 게재하였다.  
- 윤형문 교수가 주저자로 홍진태 교수와 2020년 3월, Chitinase 3 like 1 suppresses the stability and activity of p53 to promote lung tumorigenesis, Cell Communication and Signaling, 2020 Mar 4;18(1):5, IF= 5.111, JCR 상위 36.41%, SCI(E) 논문 등 3편을 게재하였다.  
- 윤형문 교수가 2020년 6월, a composition for promoting osteogenesis containing peroxiredoxin-6 activity inhibitor 특허를 등록하였다.  
- 윤형문 교수가 한국한의학진흥원과 2020년 6월 Alkaloid compound, piperlyne for preventing or treating bone diseases 등 3건 특허를 공동출원 하였다.

■ 연구비 수주

- 윤형문 교수가 맞춤형연구 (2020.03.~2021.02.) '맞춤형' 골 대사 및 골질환 미세환경에서 서카디언 리듬 핵심유전자와 세로토닌 6 수용체의 네트워크 연구'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예방 · 사회치과학교실

■ 교실동정

- 2020년 3월, 신순희 선생이 박사과정으로 입학하였다.  
- 2021년 2월, 박향아, 임아량 선생이 석사학위, 전지는 선생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류재인 교수가 "Jeon JE, Lim AR, Park HA, Ryu JI. Does the Registered Dentists' Program Alleviate the Socioeconomic Gap in the Use of Dental Sealants?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20, Oct 26; 17(21):7828" 외 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연구비 수주

- 류재인 교수가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연구사업 (2020. 01.~2020.09.)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학회발표

- 2020년 10월, 한국치위생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임아량, 박

향아 대학원생이 총 2건의 연구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이 중 박향아 학생이 학술발표부분에서 동상에 선정되었다.

### 치과재료학 교실

#### ■ 교실동정

- 2020년 3월, 민성준 선생이 석사과정에 입학하였다.

####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Induction of osteogenic differentiation in a rat calvarial bone defect model using an In situ forming graphene oxide incorporated glycol chitosan/oxidized hyaluronic acid injectable hydrogel, Carbon, 2020;168:264-277 외 7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2020년 6월, 권일근 교수가 숙신화 콜라겐-피브리노젠 하이 드로겔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였다.
- 2020년 8월, 권일근 교수가 숙신화 콜라겐 및 이를 이용한 숙 신화 콜라겐-피브리노젠 복합체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 록하였다.

#### ■ 연구비 수주

- 권일근 교수가 차세대바이오사회밀착형지원사업 (2017. 05.~2022.05.), 중견연구자지원사업 (2020.03.~2025.02), 기초 연구실지원사업 (2020.06.~2023.02)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 학회발표

- 이재서 선생이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vel and Nano Materials에서 'Temperature-responsive injectable chitosan hydrogel loaded with bone filler for bone tissue regeneration' 를 주제로 포스터 발표하였다.
- 민성준 선생이 2020 KSBB Fall Meeting and International Symposium : Hybrid Conference에서 'Injectable and Photocrosslinked Hyaluronic Acid Hydrogels Immobilized with FGF for Biomedical Applications' 를 주제로 포스터 발표하였다.

### 임상교실

### 치과교정학 교실

#### ■ 교실동정

- 2021년 2월, 김민정, 박재현, 최진영, 윤현주, 김정은, 정현주 선생이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 2020년 4월, 강윤구 교수가 UCLA 장기연수를 마쳤고, 2021년 2 월 박기호 교수가 아리조나 치과대학 장기연수를 마무리하였다.

####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Finite element study of controlling factors of anterior intrusion and torque during Temporary Skeletal Anchorage Device (TSAD) dependent en masse retraction without posterior appliances: Biocreative hybrid retractor

(CH-retractor)' 외 17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2020년 3월, 김성훈 교수가 교정용 앵커, 교정 와이어 지지용 튜브형 치과교정기구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였다.

#### ■ 학회발표

- 2020년 7월 16일, 김성훈 교수가 National Education Center of National Hospital of Odonto-stomatology in ho chi minh city에서 'Biocreative Orthodontic Strategy(BOS) Point of View on complicated cases correction' 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20년 9월 12일, 김성훈 교수가 인도네시아 교정학회에서 'RM Ricketts Bioprogressive Therapy in the time of TSADs: Biocreative Orthodontic Streategy (BOS) with TWEeMAC Rx. 및 Tweed-merrifield Philosophy in the time of TSADs: Biocreative Orthodontic Strategy(BOS) with TWEeMAC Rx.' 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20년 9월 14일, 박기호 교수가 Arizona orthodontic study group에서 'Biocreative Strategy' 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 2020년 9월 18일, 김수정 교수가 대한수면의학회 제54차 추 계학술대회에서 'Dental treatments of sleep-disordered breathing in children by age' 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20년 9월 21~27일, 안효원 교수가 대한치과수면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에서 '수면무호흡 환자에서 삼각골 협착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 2020년 10월 19일, 11월 19일에 박기호 교수가 아리조나 치과대학에서 'Orthodontic consideration factors for orthognathic surgery in skeletal Class III patient' 를 주제로 Special lecture를 진행하였다.
- 2020년 11월 1일, 김경아 교수가 대한치과교정학회 제53회 학술대회 스태프를 위한 강의에서 '근기능 훈련\_누구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20년 11월 22일, 박영국 교수가 제 12회 대한철측교정학회 학술대회에서 'Customized lingual system에서 II급 부정교합의 치료 개요' 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20년 12월 13일, A new leap into Sleep-related Orthodontics라는 주제로 제 4회 International Scientific Orthodontic Forum이 세계적 연자들을 모시고 개최되었다. 김수정 교수가 'Why and How should Orthodontists interrupt Pediatric SDB?' 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안면통증구강내과학 교실

#### ■ 교실동정

- 2020년 9월, 이연희 교수가 전임교원으로 발령받았다.
- 2020년 9월, 강수경 교수가 구강내과 진료과장으로 임명되었다.
- 2021년 2월, 홍정표 교수가 정년퇴임 하였다.

####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이연희 교수팀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기

반으로 제1대구치를 활용한 연령대 추정 연구를 진행, 해당 결과 논문 '인공지능 기반의 제1대구치 이미지를 이용한 살아있는 개인의 연령대 결정(Age-group determination of living individuals using first molar imag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를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2021년 1월에 게재하였다.

#### ■ 연구비 수주

- 이연희 교수가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관계부처)의 '구강 내 감염성 병원체 검사기기 개발' 국책과제, '타액 기반 현장형 전처리 모듈 및 구강 내 병원성 세균 신속검사키트 개발' (2020.06. ~ 2024.12.)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 학회발표

- 2020년 9월, 강수경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클라썸에서 개최된 '대한여치과외과학회 2020년 학술대회' 에서 '먼저 물어보고 먼저 설명합니다 : 치과외과와 환자의 의사소통'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2020년 10월, 전양현 교수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개최된 '기술의 발전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미래' 학술세미나에서 '치과외과 실기시험 방법'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2020년 10월, 강수경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클라썸에서 개최된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 2020년 종합학술대회' 에서 '근막통증, 턱관절통증 완전정복'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2020년 10월, 강수경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키메디에서 개최된 '2020년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에서 '측두하악장애의 물리치료' 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실

#### ■ 교실동정

- 2020년 3월 김민아 선생이 전임의로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근무를 시작하였다.
- 2020년 6월 이정우 교수가 2020년도 경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 2020년 12월 이백수 교수가 국제임플란트학회(ITI) 한국지부 신입회장으로 취임하였다.
- 2021년 1월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에서 권용대 교수팀이 대상 수상 하였다.
- 2021년 2월 황보연 선생이 이정우 교수로부터 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 2021년 2월 류동목 교수가 정년 퇴임하였다.

####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Is implant surgery a risk factor for osteonecrosis of the jaw in older adult patients with osteoporosis? A national cohort propensity score-matched study 외 15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 연구비 수주

- 권용대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2020.03 ~ 2023.02)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권용대, 오주영, 정준호 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국가 혁신융복합단지지원 사업 (2020.10 ~ 2022.12) 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이정우 교수가 보건산업진흥원 국산 치과 의료기기의 글로벌 리딩 도약을 위한 차세대 융복합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 (2020.11 ~ 2023.12)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정준호 교수가 '치은 이식 대체재의 혈관화 및 골대사 저하 환경에서의 골모세포 관련 EMD-liquid의 효과' 를 주제로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 학회발표

- 2020년 5월 최병준 교수가 네이버 건강판 주최 랜선 건강 상담에서 강연하였다.
- 2020년 6월 권용대 교수가 서울치과외과학회 주최 SIDEX 2020에서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한 가이드 라인' 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 2020년 11월 권용대 교수가 한국심는치아연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강연하였다.
- 2020년 12월 권용대 교수가 국제임플란트학회(ITI) 한국지부 academy에서 강연하였다.

### 치과보존학 교실

#### ■ 교실동정

- 2020년 9월 오소람 교수가 조교수로 발령받았다.
- 2021년 2월 서남식, 심지희 선생(지도교수 최경규 교수)이 박사 학위를, 권승호 선생(지도교수 장지현)이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In Vitro Characterization of Dental Pulp Stem Cells Cultured in Two Microsphere-Forming Culture Plates,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2020; 9(1):242.외에 총 19편의 논문 및 학회 초록을 게재하였다.

#### ■ 연구비 수주

- 김덕수 교수가 '자가치아미백용 광조사기의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2020.03.01.~ 2020.09.01)를 주제로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김덕수 교수가 지각과민증 전용 치약의 효능비교를 위한 무작위 임상연구 (2020.05.01.~ 2020.09.01)를 주제로 교비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장지현 교수가 수종의 칼슘 실리케이트 시멘트가 미소구체형성 유도배양한 치수 줄기세포 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0.03~2021.02)를 주제로 교비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 학회발표

- 2020년 5월 13일 덴즈플라이 시로나에서 주최하는 웹 세미나



- 나에서 장지현 교수가 '접착제의 최신 트렌드, Is it time to change my bottle?' 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 2020년 5월 19일 유한양행에서 주최하는 엔도 핸즈온 워크샵에서 장석우 교수가 'Secrets of successful endodontic practice' 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 2020년 7월 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접착치의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장지현 교수가 '슬기로운 세라믹 접착, 이론과 FAQ'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20년 7월 7일 3M에서 주최하는 웹 세미나 Clinical guidelines & Tips-3M 방구석 세미나에서 최경규 교수가 '세라믹 보철물! 올바른 접착 방법과 시멘트의 선택을 위한 Tips' 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20년 7월 14일 3M에서 주최하는 웹 세미나 Clinical guidelines & Tips-3M 방구석 세미나에서 김덕수 교수가 '내가 쓰는 접착제! 정확하고 효율적인 본딩을 위한 Tips' 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20년 9월 2일 3M에서 주최하는 웹세미나 '방구석 톱톡' 에서 최경규 교수가 치경부 과민증에 대해 강연하였다.
- 2020년 9월 7일 3M에서 주최하는 웹세미나 '방구석 톱톡' 에서 장지현 교수가 'Fiber post 써볼까?' 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20년 10월 28일 3M에서 주최하는 웹세미나 '방구석 톱톡' 에서 김덕수 교수가 '유니버설 접착제 Part1:써도 될까?' 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20년 11월 4일 3M에서 주최하는 웹세미나 '방구석 톱톡' 에서 김덕수 교수가 '유니버설 접착제 Part2:잘 사용하는 방법' 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20년 11월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치과보존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진규 교수가 'Management of the exposed pulp in permanent teeth with deep caries: Vital pulp therapy' 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20년 11월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접착치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김덕수 교수가 '내가 한 복합레진 왜 불편할까요?' 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20년 12월 13일 메트로덴에서 주최한 엔도 핸즈온 세미나에서 장석우 교수가 '손으로 배우는 엔도' 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치과보철학 교실

- 교실동정
  - 2020년 1월, 경희대학교 보철학 교실 신년하례식이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 2020년 4월, 경희대학교 치의학과 보철학 전공 박사과정 전공의 정민아 선생(지도교수: 이성복 교수)이 '술자의 숙련도에 따른 컴퓨터 가이드와 가이드 드릴을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방법의 정확도에 관한 3차원적 비교 평가' 에 대하여 논문심사를 위한 공개발표를 하였고, 심사를 집행하였다.
  - 2020년 5월, 최예원 선생의 결혼식이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 2020년 7월, 보철학회 신입전공의 OT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 2020년 12월, 보건의날을 맞아 권궁록 교수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 2021년 2월, 백장현교수가 심재승 선생에게 석사학위 (학위 제목 :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한국 성인에서 가철성 의치 장착 여부와 우울증의 연관성)를 수여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A novel retentive type of dental implant prosthesis: marginal fitness of the cementless double crown type implant prosthesis evaluated by bacterial penetration and viability, The Journal of Advanced Prosthodontics, 2020;12:233-8, 외 13개 논문을 게재하였다.
- Oral Soft Tissue Regeneration Using Nano Controlled System Inducing Sequential Release of Trichloroacetic Acid and Epidermal Growth Factor, Tissue Eng Regen Med, 2020;17(1):91-10, 외 7개 논문을 게재하였다.

■ 학회발표

- 2020년 6월 20일 홍성만, 조유경 선생이 세종대 광개토태관에서 열린 KAOMI(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에서 'Mechanical complication and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CAD/CAM custom abutments: a 4-year retrospective study', 'Margin fitness and bacterial penetration of Cementless Fixation(CLF) System of the dental implant prosthesis' 를 발표하여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 2020년 6월 27일 ITI 국제임플란트학회 한국회장 이성복 교수가 ITI Annual Meeting 공식 온라인 학술행사에서 '고령환자를 위한 임플란트 치료전략(영어버전)' 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이 내용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하여 전세계에 공유되었다.
- 2020년 7월 25일 주창민, 최지혜 선생이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물의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의 다양한 복제증례', '심한 마모와 부식을 지닌 골격성 III급 환자의 교정치료를 동반한 수복증례' 를 발표하여 우수발표상과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 2020년 9월 19일 주창민 선생이 온라인으로 개최된 대한치과 이식임플란트 춘계 학술대회에서 '카드캠 맞춤 지대주와 연관된 기계적 합병증과 위험요소 분석: 4년 후향적 연구' 를 발표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 2020년 11월 28일 노관태 교수가 온라인으로 개최된 대한치과 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총의치인상의 정석' 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 2020년 11월 28일 이성희 선생이 온라인으로 개최된 대한치과 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Multilayer precolored zirconia 종류에 따른 색조분포 및 투명도에 관한 연구' 를 발표하여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 2020년 12월 27일 백장현 교수가 아랍에미레이트 SEHA 대학

- 을 대상으로 "DENTAL IMPLANT SYSTEM 101"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소아치과학 교실

■ 교실동정

- 2020년 5월 최성철 교수가 대한소아치과학회 학술이사로 임명되었다.
- 2020년 5월 이효설 교수가 대한소아치과학회 보험이사로 임명되었다.
- 2020년 8월 강호연 선생이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 2020년 10월 대한소아치과학회 온라인종합학술대회에서 강호연 선생이 구연발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2020년 12월 이효설 교수가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 2021년 2월 김광철 교수가 정년퇴임을 하였다.
- 2021년 2월 정우범 선생이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Time-Dependent Response of Human Deciduous Tooth-Derived Dental Pulp Cells Treated with TheraCal LC: Functional Analysis of Gene Interactions Compared to MTA, 2020 Feb 15;9(2):531, 외 12편의 SCIE급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 소아 얼굴 연조직의 3차원 입체영상의 정확성 및 재현성 평가, 2020 Feb 29;47(1):17-24, 외 5편의 국내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 연구비 수주

- 이효설 교수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2020.09.~2022.12.)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남옥형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신진연구 (2020.03.~2023.02.)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학회발표

- 2020년 10월, 남옥형 교수가 대한소아치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과잉치 발거 술기 교육에서의 3D 프린팅 모델의 활용'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2020년 10월, 최성철 교수가 대한스포츠치의학회에서 '스포츠 외상 응급치과치료 - 치아외상 처치' 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2020년 11월, 김미선 교수가 제10회 치과마취과학회 주최 경구흡입진정법연수회에서 '치과 불안과 비약물적인 행동조절' 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영상치의학 교실

■ 교실동정

- 2020년 9월 15일 최용석교수는 치과대학 교육부장으로 승진하였다.
- 2020년 9월 15일 김규태 교수는 치과대학 영상치의학과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Malignant transformation of fibrous dysplasia into angiosarcoma, Oral radiology, 2020 외 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치주과학 교실

■ 교실동정

- 2020년 6월 정종혁 교수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 2020년 6월 임현창 교수가 경희 의학상을 수상하였다.
- 2020년 7월 임현창 교수가 Oral Reconstruction Foundation 학술연구상 수상하였다.
- 2020년 8월 서성우 선생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Augmentation of keratinized tissue at tooth and implant sites by using autogenous grafts and collagen-based soft-tissue substitutes, J Clin Periodontol, 2020 Jan;47(1):64-71,외 18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연구비 수주

- 2020년 6월, 허익 교수가 '만성 치주염 환자에서 ALH-L1005 600 mg 또는 1200 mg을 12주간 투여 후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제 2상 임상시험'을 주제로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2020년 9월, 임현창 교수가 '파괴된 발치와에서 블록형 및 입자형 골이식재를 이용한 치조제보존술의 발치 후 치조제 부피 변화에 대한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를 주제로 다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였다.
- 2020년 10월, 임현창 교수가 '나노 표면 임플란트와 SLA (Sand-blasted, Large-grit, Acid etching)표면의 임플란트의 초기 변연골 안정성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 대조 탐색 임상 연구'를 주제로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학회발표

- 2020년 9월, 신승일 교수가 온라인 상으로 진행된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종합학술대회에서 '나도 치주수술 할 수 있다!'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20년 10월, 김상엽 선생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American Academy of Periodontology 107th Annual meeting 에서 'The effect of collagenated synthetic bone substitute material without a collagen barrier in the maxillary sinus with a perforated Schneiderian membrane : a preclinical study'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2020년 11월, 홍지연 교수가 대한치주과학회 2차 집담회에서 'Introduction to Proteomics for the Biomarkers of Periodontal Disease' 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아리조나 치과대학을 다녀와서

## 치과교정학 교실 박기호 교수

나는 2020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미국 아리조나 피닉스 동쪽에 인접해 있는 도시인 메사에 있는 아리조나 치과대학(Arizona School of Dentistry and Oral Health, A.T. Still University)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교정과(Postgraduate Orthodontic Program)의 Chair가 경희대학교 선배이신 박재현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해외 연수 대학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큰 도움을 주셨다. 해외 연수 기간이 교수 생활 중에서 유일하게 일에 치이지 않고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생활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 동안 짧은 기간의 학회 참석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오랜 기간 지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리조나에서의 1년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도착한 후 첫 달은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집에 전기, 가스, 인터넷을 신청하고 가구를 구입하고 아이들 학교 등록시키고, 중고차 사고, 보험 가입하고, 대학에서의 orientation meeting에 참석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집은 아리조나에서 학군이 좋고 비교적 한인이 많은 챠들러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구했다.

아리조나 치과대학 교정과에는 Chair이신 박재현 교수님, Clinical Director인 Dr. Papademetriou, Associate Administrative Director인 Dr. Zhang등 3분의 full-time faculty와 Dr. Forman과 Dr. Running등 현직에서 은퇴하신 Part-time faculty가 몇 분 계셨다. 박재현 교수님은 차차기 ABO (American Board of Orthodontists) 회장이고 교정학 저널 중에서 가장 유명한 AJODO의 Associate Editor이셨기 때문에 전공의 교육에 대해 상당히 열정적이셨다. 특히 매주 월요일 아침에 시작하는 Dx/Tx seminar, 매주 화요일 아침과 점심 시간에 하는 통계 강의와 Research project presentation, 매주 목요일 아침에 하는 ABO 저널 리딩은 박재현 교수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고 조율하셨다. 수요일 점심 때 있는 악교정 수술 세미나는 Dr. Papademetriou가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를 초청하여 함께 진행하였다. Dr. Levin, Dr. Spark, Dr. Seuss와 같이 개원의 중에서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외래교수가 몇 분 계셔서 Biomechanics, Invisalign, First phase treatment, Wire

bending 등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또, 미국이나 해외의 연자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많이 하였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횟수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UCLA에서 해외연수를 하던 강윤구 교수도 귀국하기 전에 아리조나 치대에 초청받아서 palatal TSADs의 다양한 임상적용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미국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수와 전공의들 간에 벽이 없이 상당히 수평적인 인간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Dr. Running은 연세가 거의 80이 되신 분인데 항상 먼저 전공의들과 후배들에게 다가가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외국에서 온 나한테도 먼저 인사하고 조그만 것도 칭찬해 주셔서 그분을 대하면 늘 기분이 좋아졌다. 전공의들도 그분을 친할아버지처럼 대했다.

나는 아리조나 치대의 교정 수련 교육에 참여하면서 가끔씩은 직접 강의도 하였고 논문 투고가 의무인 전공의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국 교정 수련 프로그램과 ABO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좋지 않은 영어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조나 교정 개원의들의 모임(Arizona orthodontic study group)에서 강의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영어 울렁증이 약간은 좋아진 것 같다. 박재현 교수님은 그 동안 SCI 저널에 수 백 편의 논문을 게재하셨을 정도로 논문 작업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나는 아리조나 치대에 있는 동안 1저자로서 박재현 교수님과 여러 편의 논문 작업을 함께 할 수 있었다. 박재현 교수님은 경희대 치대를 졸업하시고 경희대 해부학 교실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서 개원하시면서 경영적으로도 성공하신 후 40세에 미국으로 가셨다. 이후 뉴욕 치대에서 교정과 수련을 받고 아리조나 치대에 정착하셔서 한인 최초로 ABO 차기회장까지 되셨기 때문에 한국 교정학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분과 함께 있으면서 이 분이 교정 수련을 받으신 지 십 여 년 만에 이렇게 유명한 분이 되신 이유가 학문에 대한 진지함과 지치지 않는 열정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드는 내 모습을 깊이 반성하게 된 것 같다.

아리조나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리조나 치대의 휴일이나

▲ 교정학



▲ 마지막 출근하는 날 교정과 교수님들과 전공의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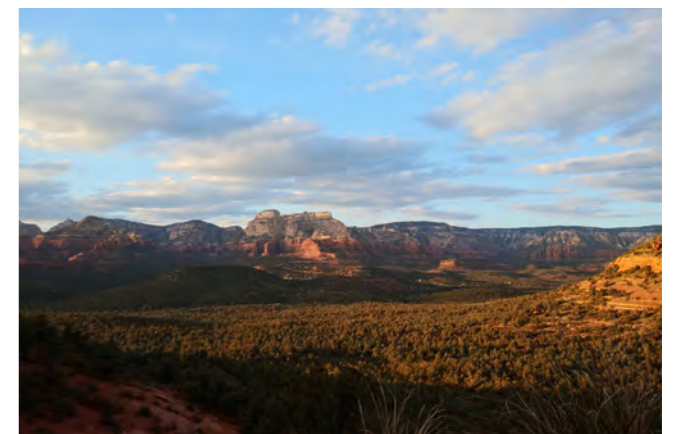
▲ 본관 앞에서 3년차 환송 사진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함께 최대한 미국을 많이 경험하려고 계획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3월 중순부터 무서운 기세로 미국 전역을 뒤덮었다. 1월 말에 미국에 도착할 무렵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오히려 코로나 문제가 심하였기 때문에 공항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과 동양인 몇 명뿐 이었다. 한국에서는 당시 매일 십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다가 2월 말부터 폭증하여 3월 1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106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3월 초만 해도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20명 정도였기 때문에 필자의 눈에 비친 한국은 위태로워 보였다. 한국의 가족들이 걱정되어 매일 카톡으로 안부를 확인하였다.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 나에게 연락해서 “코로나로부터 피난을 잘 갔네.”라는 농담을 할 때만 해도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매우 안전한 곳이라는 착각에 빠졌다. 아이들이 3월 중순에 봄방학을 할 때만 해도 당연히 2주간의 봄방학 후에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의 그랜드 캐니언, 그랑폴, 호르슈 밴드, 파월 호수 여행은 우리 가족에게 오랜만에 해방감과 행복감을 선물해 주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미국의 코로나가 급속히 증가하여 하루 확진자가 4월에는 3만명, 6월에는 7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우리 가족이 귀국할 당시인 작년 연말에는 20만명이 넘었다. 인구 700만이 조금 넘는 아리조나주의 상황은 미국 내에서도 심각하여 하루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으니 인구 대비로 보면 대한민국에 하루 7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꼴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아리조나 치대병원원은 3월 하순부터 7월까지 전면적으로 문을 닫았고 아리조나 치대의 교수나 직원, 학생들 중에도 여러 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미국은 코로나에 걸려도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제대로 치료받기도 힘들고 병원비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조심하느라 일상 생활에 제약이 컸고 우리 가족은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리조나의 기온이 여름에는 섭씨 48도까지 올라

갔고 아이들이 물에 가고 싶어 했지만 타운하우스 내에 있는 풀장에도 거의 갈 수가 없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국내선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먼 곳은 갈 수가 없었고 차로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의 야외로만 여행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활한 그랜드 캐니언, 세도나의 붉은 흙과 바위들, 거대한 선인장들로 유명한 투싼의 국립공원, 데스밸리의 단테스 뷰, 샌디에이고와 맨하탄 비치에서 본 태평양등 방문했던 모든 곳에서 우리 가족은 미국의 거대한 자연의 힘을 느끼며 그 동안 뻘뻘한 일상에 찌들었던 마음을 재충전 할 수 있었다.

아리조나는 넓은 땅에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친절하고 호의적 이었다. 항상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가족에게는 아리조나에서의 기억이 아름답게 남아 있다. 나를 아리조나 치대에 방문 교수로 초청해 주시고 아리조나에 있는 동안 우리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연구와 전공의 교육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박재현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항상 미안했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아리조나에서의 추억을 오래도록 깊이 간직하고 싶다.



▲ 세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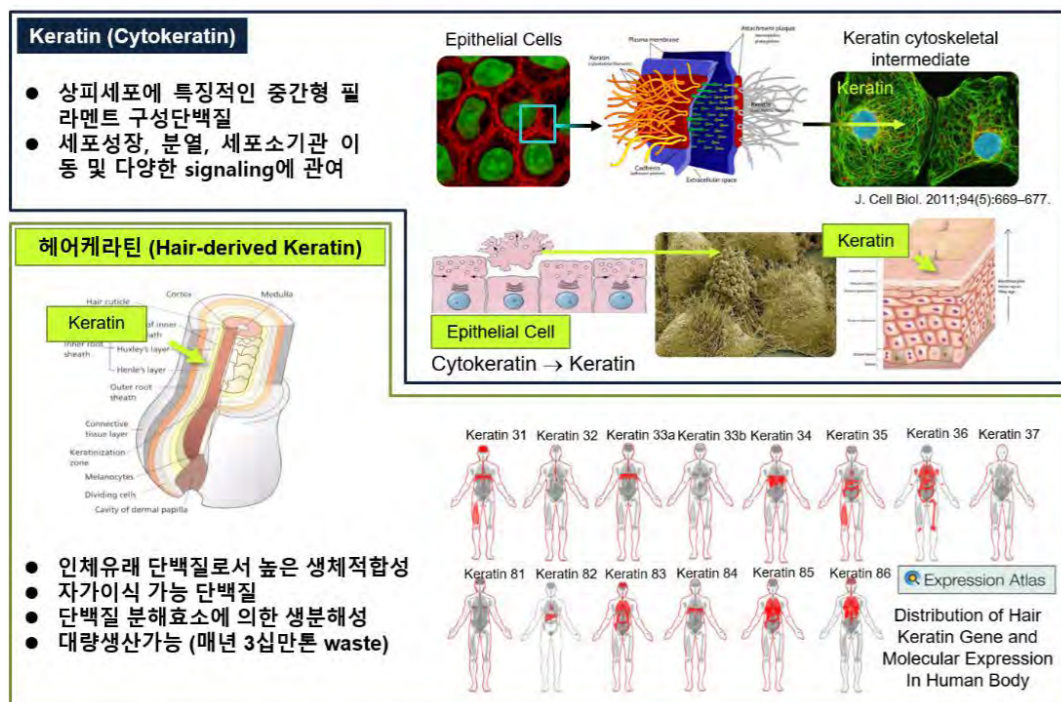
# 연조직 수복용 재조합 케라틴 단백질 바이오신소재 개발

약안면생체공학 교실 황유식 교수

## 천연생체재료와 조직재생

지금까지 필러, 창상치료제 및 봉합사 등의 의료기기로써 합성 고분자 및 다양한 생체재료가 연구·개발되어 오고 있다. 의료기기의 재료로서 많은 합성고분자 개발되어 응용되어 오고 있으나, 임상적용시 제한적인 생체활성에 의해 불안정한 조직재생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방법으로 떠오른 것은 동종 또는 이종유래의 천연재료로써 세포를 지지해주는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의 생체재료로서의 응용을 시도해오고 있다. 의료기기의 허가시 안전성 시험항목으로 단회투여 독성, 반복투여 독성, 생식독성, 유전 독성 및 발암성 등이 있으며, 이러한 독성 관련 생체적합성 및 안전성과 조직재생능을 고려할 때 생체 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체흡수성 및 세포적합성이 뛰어난 천연생체재료가 의료기기의 구성성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생리활성 물질은 천연상태와 거의 동등한 구조와 조성을 유지하여 인체 적용시 치료 효율 등의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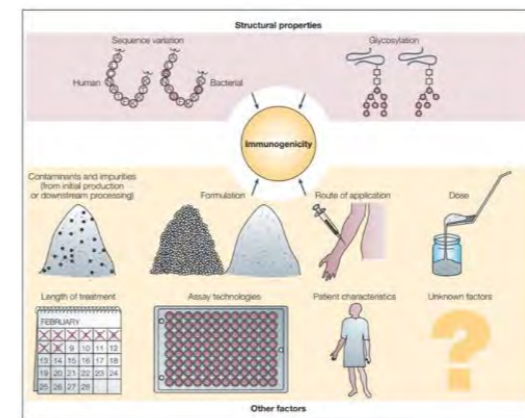
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이러한 천연 생체재료 중 콜라겐 및 히알루론산 창상치료제, 필러, 차폐막, 지혈제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콜라겐 및 히알루론산은 높은 생체활성 및 생체적합성의 특성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콜라겐의 경우 동종유래가 아닌 소, 돼지와 같은 이종으로부터 유래한 천연 생체재료로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광우병 및 구제역과 같은 가축유래 질병의 유발시 그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의료기기로의 적용범위에 제한이 있고, 히알루론산의 경우 생체활성 면에서 그 기능이 낮아 그 적용범위에 제한이 있다. 가장 이상적인 천연생체재료는 동종유래 및 높은 생체활성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태반 등의 조직에서 콜라겐 등을 추출하여 의료기기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체유래 적출물 관리에 관한 까다로운 절차와 공급량의 문제로 이 또한 그 응용범위에 제한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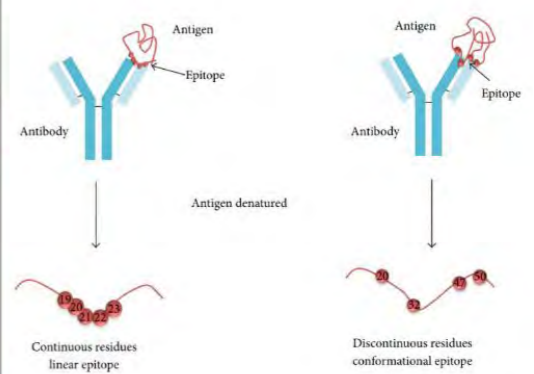
## 천연생체재료로서의 케라틴 단백질

생체재료로서의 Human Hair 유래 케라틴 단백질은 매년 30만톤이 전세계적으로 버려지고 있는 Human Hair로부터 풍부히 추출될 수 있으며, 사람유래 단백질로서 자가이식도 가능하며 다른 생물학적 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체적합성 및 매우 낮은 면역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사람머리카락(Human Hair)내 주요 구성성분인 케라틴(Keratin) 단백질이 사람유래 단백질로서의 높은 생체적합성 및 세포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최근에 생체재료로서의 사용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생체적합성을 지닌 인체유래 생체재료라 하더라도, 치료재료로의 적용시 자가유래 단백질이 아닌 이상 단



백질 합성시 생물학적 과정에 의한 인체 면역반응에 따른 응용에 제약이 있다. 치료재료로서 인체적용시 발생하는 면역반응은 단백질의 경우 아미노산 서열 특이성에 따른 면역반응과 세포에서 단백질 합성시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 당화반응(glycosylation) 과정을 거쳐 당사슬이 단백질에 붙어서 최종적으로 당단백질(Glycoprotein)로 합성되게 되는데, 이러한 당구조는 동물의 종류 및 세포에 따라 상이하하며, 이들 당구조에 의해 단백질의 구조가 결정되어짐으로 인해 면역작용을 유발하는 삼차원적인 아미노산 서열이 발생되어, 동종으로부터 유래한 단백질이라 하더라도 동물 간 또는 사람 간 생체 적용시 당구조에 의한 단백질의 구조적 변화가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당화반응(glycosylation)과정이 없는 대장균(E.coli)을 이용한 당구조가 없는 재조합 단백질 합성을 통해 많은 천연고분자 생체재료를 합성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콜라겐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체유래 단백질들은 그 생물학적 기능이 단백질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재조합시 대장균내 당화과정이 없어 당구조를 형성

하지 못한 단백질들은 생물학적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재조합 인체유래 단백질을 합성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팀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20년부터 5년간 50억의 연구비를 받아 재조합 케라틴 단백질의 의료기기 응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① 재조합 케라틴 단백질의 추출 및 생산 공정 확립과 재조합 케라틴 단백질의 생물학적 기능 및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② 재조합 케라틴 단백질을 기반으로 물리화학적 개질 및 복합화를 통해 다양한 제형의 새로운 바이오소재를 개발하며, ③ 개발된 바이오소재의 동물모델을 통한 생물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분석하여 용도에 따른 의료기기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재조합 케라틴 단백질 기반 바이오소재를 이용한 품목별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인체유래 케라틴 단백질 기반 의료기기 원천기술의 개발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조합 기술로 생산된 탈당화 케라틴을 기반으로 연조직 수복을 위한 창상피복재, 치과용 차폐막, 지혈제 및 필러 4종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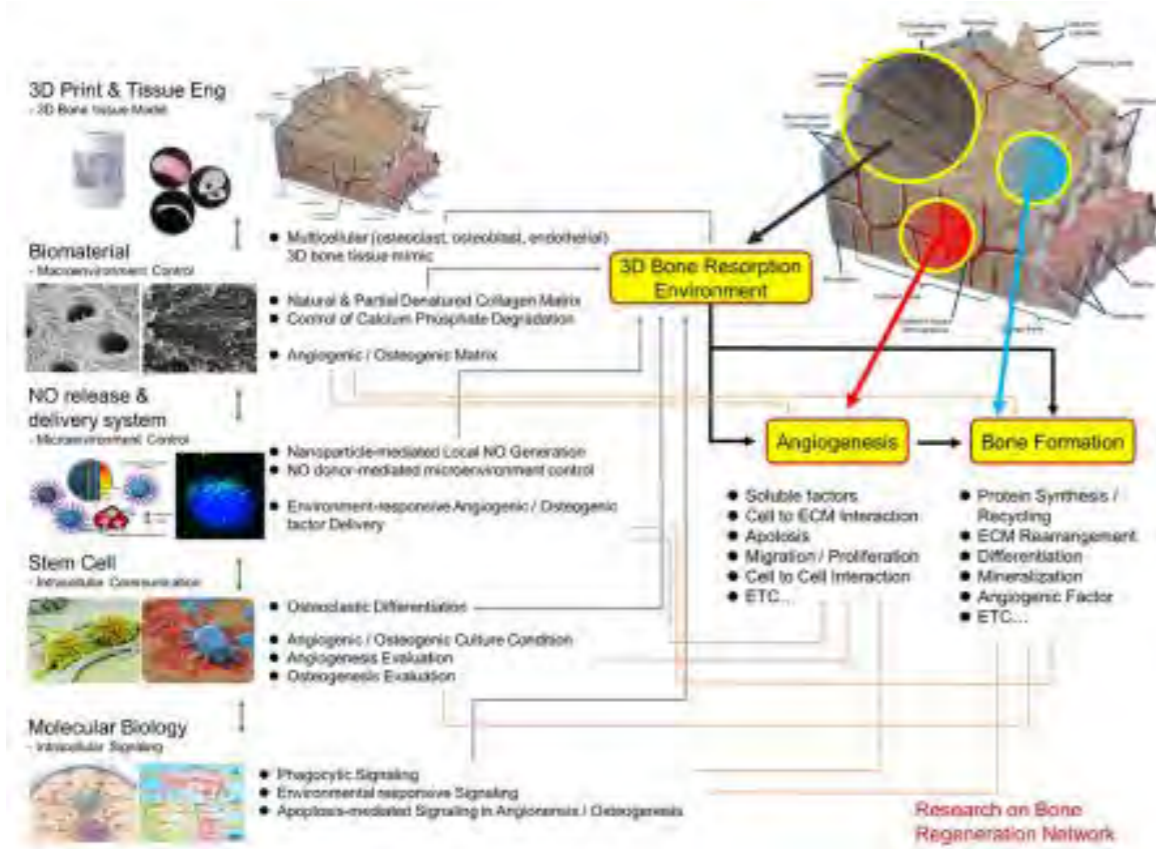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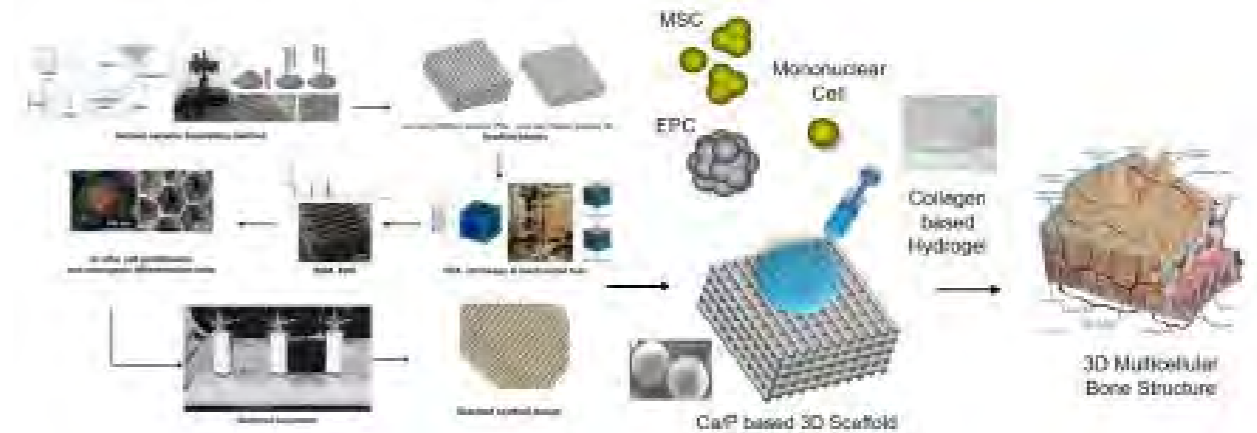
# 악골 재생 네트워크 제어 연구실

2020.06.~2023.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과제

치과재료학 교실 권일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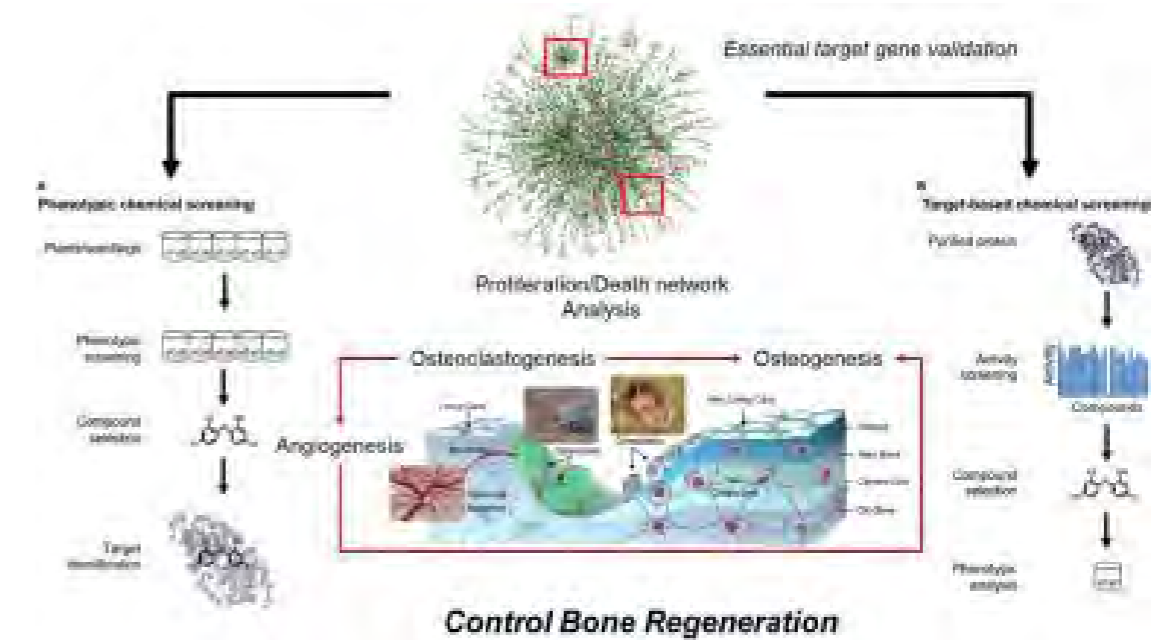
매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가면서 악골질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단기적인 증상 완화 치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른 질환에 비해 악골질환에 대해서 골이식재를 이용한 조직재생적 접근이 가장 활

성화되어 있고 가장 활발하게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메카니즘 연구나 조직재생용 생체재료 소재를 이용한 치료는 초기 단계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다 향상된 조직의 수복 및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다양한 고분자를 기반으로 생체재료에 대한 연구,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나노입자 연구 및 최근 들어 줄기세포와 지지체의 복합화를 통해 인공조직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악골조직에서 발생하는 허혈증(hypoxia), 신생혈관 형성(angiogenesis) 및 세포간 상호작용

(cell-cell interaction), 세포와 주변 미세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생물학적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및 기초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개구강악안면(cranio-maxillofacial, CMF) 복합조직의 해부학적 구조 및 기능성 복원을 위한 융복합 기술 개발에 그 초점을 두고,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의 총괄 책임 하에 포항공과대학교와 함께



두 팀의 협업으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일산화질소 (Nitric Oxide, NO) 는 다양한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NO의 주요기능은 1) 순환계에 혈관확장과 생성에 관여, 2) 면역계의 방어기작에 작용, 3) 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NO를 이용한 주요연구는 혈관, 피부 재생 혹은 암치료 연구에 집중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체내에서의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나노기술을 이용한 최첨단의 NO 방출 시스템도 더불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단시간 내로 빠르게 NO를 폭발적으로 방출하여 접근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혈관과 면역반응에 관여하고 있어 골 재생 분야에서의 활용 가치가 높은 NO를 이용하여 서방출이 가능한 NO소재 개발하고, NO의 다양한 농도와 방출조건을 고

려하여 NO 탑재형 융합 재료 플랫폼을 제작하고, 이를 세포 수준과 동물 수준에서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기전을 밝히고자 한다. NO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일정 세포에 국한되어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골 조직 메카니즘과의 연관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계층화된 복합조직을 복원하기 위해 일반적인 조직공학적 골 이식재 제작방법이 아닌 보다 복잡한 구조를 형성화 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과의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3D bone mimic tissue의 구현, NO 서방출 생체재료를 이용한 세포와 세포외기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미세환경조절을 통해 생체내 신생혈관 형성 및 골재생 환경을 모방하고, 악골조직이 재생되는 메카니즘을 규명하는 악골 재생 네트워크 제어 기초 연구를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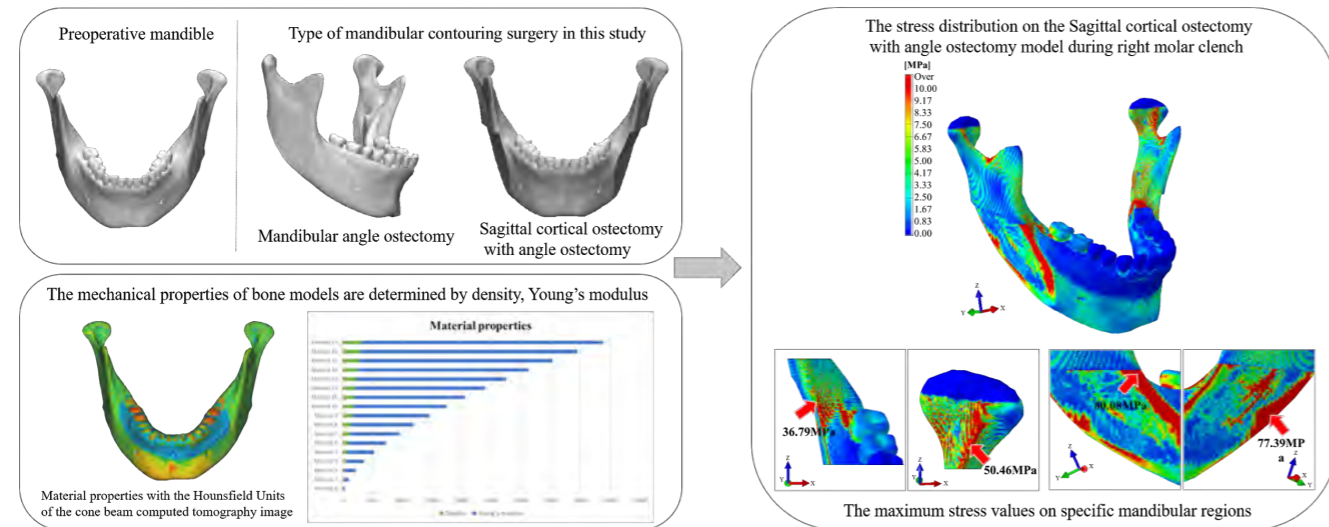
# 생체모형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과 역학적 병인론 탐색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실 권용대 교수

의학에서의 모든 연구는 곧 환자의 복리가 최종 목표이며 따라서 모든 관련 연구의 마지막 단계는 임상가에 의해 주도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상가의 질환에 대한 통찰과 기초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연구의 진행을 빠르고 보다 직접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팀은 임상 의 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임상시험까지 폭 넓은 연구 방법론으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시험으로 테스트하기 어려운 임상적 궁극증을 컴퓨터 모형을 통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컴퓨터의 고 사양화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복잡한 악골 구조를 재현하여 유한 요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간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교실과 협력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하악골 윤곽 성형술 후 악골의 안정성 평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로 기계공학적인 분석을 통해 구강악안면을 구성하는 조직 및 기관의 탐구를 실시하여 기초와 임상 연구의 융합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의 결과가 최근 Journal of 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에 "Effect of mandibular contouring surgery on the stress distribution during various clenching tasks"이란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실제 안면윤곽술이 하악골의 구조에 취약함을 만들 수 있다는 가정을 실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생체모형의 재현과 이를 이용한 연구는 맞춤형 의학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개개인의 악골 모형을 구현하여 개개인의 골밀도나 해부학적 구조를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치과 임플란트가 악골에 미치는 역학적인 영향을 미리 알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팀은 오래전부터 MRONJ (medication rel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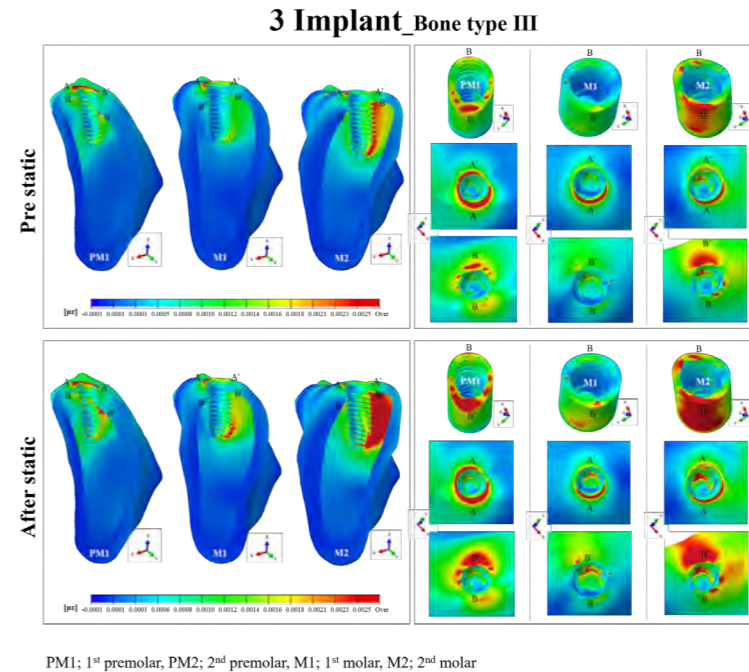
osteonecrosis of the jaw)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장기간 수행해 왔습니다. 진단 마커 연구에서 치료까지 10여년간 많은 연구논문들을 발표하고 또한 많은 피인용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환자를 보면서 임상적 난제나 질환의 새로운 양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 연구와 접목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 치과 임플란트의 대중화는 많은 관련된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고 특히 고령층에서 시술되고 있어 고령의 환자와 관련된 요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와 MRONJ의 연관성을 찾고자 2018년 골대사회학회 연구과제 공모에서 선발되어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자료를 이용한 치과 임플란트와 MRONJ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얼마전 예방사회치과학교실의 류재인 교수와 치과임플란트 관련 상위 학술지인 Clinical oral implants research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치과임플란트와 MRONJ간의 관련을 다룬 전세계적으로 첫 nation-wide study였습니다.

노인 악골은 건강한 성인의 악골에 비해 골밀도가 떨어지고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에 근거하여 치과 임플란트가 자연치아와 다른 연결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인환

자에서 치과 임플란트가 악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주인대가 결여된 치과 임플란트가 골밀도가 저하된 노인의 악골에 저작압을 전달할 때 건강한 조건에서 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전달하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켜 MRONJ의 발생 기여요소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 연구중입니다. 이는 2020년 연구재단 연구비를 수주 받아 진행중에 있으며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와 융합연구를 통해 골대사 생체 신호를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형태적 및 기능적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실제에 가까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이 연구를 통해 개개인의 맞춤형 정밀 의료실현의 기대와 효과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치과 임플란트의 임상 연구로는 직경이 좁은 치과임플란트 (NDI)에 대한 임상 연구를 수행하여 이들의 임상 경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 중입니다. 지난해 의료영상 기반 치과 및 악안면 수술 계획과 예측을 위한 Planning SW 개발 및 사용적합성 평가를 주제로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를 보철과 노관태 교수와 함께 수주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는 최근 연구 트렌드를 반영한 임상시험입니다.

수년간 몇몇 연구과제를 학생들과 함께 발표하면서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기회를 갖을 수 있었으며 좋은 성과를 통해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임상을 통해 갖는 의문이나 아이디어를 그냥 흘려 보내지 말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도구가 주변에 있습니다. 환자를 보면서 느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되짚어보고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이 융합연구를 위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이나 치의학이나 그 연구의 종착역은 환자입니다. 이후 임상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임상기술과 함께 치의학 연구에 대한 작은 동기를 부여하고 그 중에 좋은 학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연구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 신임교원 인터뷰 (순서: 발령순, 가나다순)

### 소아치과교실 김미선 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학기 치과대학 치의학 과에 임용된 김미선입니다. 저는 현재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발령받은 지 1년이 넘었네요. 지난 1여 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 학생들을 만나기 힘든 환경이지만

이렇게 지면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2005년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한 37기이고, 졸업 후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서 전공의 3년과 전임의, 임상조교수,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임상조교수로 근무하다 2019년에 임용을 받았습니다.

저의 전공 분야는 소아치과학입니다. 치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보다 치과는 더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소아 환자의 재미있고 즐거운 치과 경험은 앞으로의 치과에 대한 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이 시기는 평생의 구강 관리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여 소아치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활짝 웃어주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 아이들이 수줍게 꺼내서 주는 '선생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를 받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소아치과는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전반적인 구강 조직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과입니다. 소아환자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항상 노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아의 성장과 발육, 치아우식증의 예방 및 치료, 부정교합 관리, 외상 치료, 소수술, 진정요법, 장애인치과 등의 분야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로는 치아의 수명을 좌우하는 치수 조직의 재생 분야, 치아의 발육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2021년 교비연구비 지원사업과 한국연구재단의 개인연구지원사

업에 선정이 되어 더욱 더 연구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전임교원이라는 자리는 몇 배는 더 큰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겸손하고 성실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 교육, 연구 등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의 일원이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 구강악안면외과교실 정준호 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에 발을 들인지 올해로 정확히 20년 되었습니다. 2001년에 입학하여 2019년 조교수로 임용 받고 현재 2021년까지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난 것 같습니다. 20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만큼 경희대학교에 많은 추억이 있고 따라서 누구보다

많은 애정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처음 입학했을 때는 막연히 치과의사가 되자! 라는 생각밖에 없었지만, 대학 생활과 인턴 생활을 거치면서, 치과의사로서 약교정 수술이나 구강암 수술과 같은 큰 수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고 구강악안면외과라는 학문을 배우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이 때로는 많은 고민을 하게 하고, 환자를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저의 치료로 절박한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님들의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나 어려운 수술을 해내는 모습에서도 큰 감명을 받았고 닮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당직이나 야간까지 진행되는 수술, 환자에 대한 고민 등으로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 냈을 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전공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이 학문을 더 탐구하여, 교수님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대학에서 연구와 수술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으로 다시 돌아 가고 싶다는

생각에 군의관 생활을 하면서 간혹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구강악안면외과 군의관으로서 집도하고 싶은 마음에 강원도 원통에서 군의관 2년차를 보내고 군병원으로 옮겼던 기억도 납니다.

스스로 돌이켜보면 전공의 때부터 그리 특출난 것은 없었다 싶었지만 교수님들께서 공부하고 수술하고 싶어했던 저의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군의관 끝나자마자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부학장님을 맡고 계신 권용대 교수님의 추천으로 독일에 위치한 Johannes Gutenberg 대학 구강악안면외과에 International Team for Implantology (ITI) 라는 국제 임플란트 학회에서 주는 장학금까지 받고 공부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2년 반 동안의 외국 생활에 힘든 점이 없었다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저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고 많은 수술과 실험에 참여하는 등 매우 중요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고 한국, 경희대 구강악안면외과에 다시 왔을 때, 교수님들이 많이 반겨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마침내 교수라는 어떻게 보면 과분한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 임용 3년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주어진 일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려 합니다.

그간 고령화 사회에서 대두된 골다공증과 그 치료로 말미암아 발생한 '악물 관련 악골괴사증(MRONJ)' 에 대해서 세포 실험, 동물 실험 등을 수행하였고 이런 환자에서 치유와 골재생을 늘리기 위한 치료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이러한 노인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구강 악안면 질환 및 임플란트 난이도 역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하여 시행할 생각입니다. 향후 구강암 환자와 악교정 수술 환자에 대한 가상 수술과 3D 프린팅을 이용한 수술법 연구도 관심을 두고 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수술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 또한 증가 추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정확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간결화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수술법을 완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현재 치과 병원에서 양악 수술, 악성 및 양성 종양, 외상, 감염, 임플란트 등 다양한 진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고 계속 도전하고 싶은 영역은 구강악성종양 파트입니다. 종양 절제술, 경부청소술,

악골 재건술 및 미세혈관 수술 등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중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섬세해야 하는 너무나 어려운 분야이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자를 도우면서 그만큼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임상관련 역량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임용 받기까지 그동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많은 스승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 보답하는 길은 임상, 교육, 연구 모두 빠짐없이 힘을 쏟는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걸어간 분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또 뒤따를 후학들을 위하여 길을 안내하는 교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치과보존학 교실 오소람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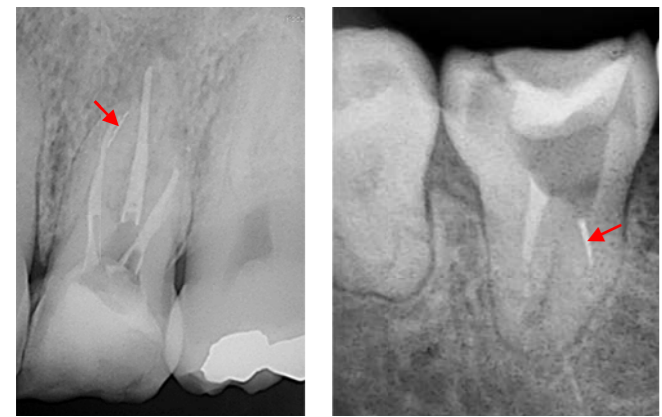


새로운 길 안녕하세요. 경희대 치과대학 교수님, 재학생, 동문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께 인사 드립니다. 보존과에 2020년도 9월1일에 조교수로 발령 받은 오소람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2007년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인턴, 보존과 수련을 마친 후 개인의원에서 2011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5년간 페이닥터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습니다.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에는 서울대 치과병원 보존과 실험실에서 박사 학위를 위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실험을 하였습니다. 박사 과정 실험을 하면서 실험을 설계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생겨서 공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진로를 변경하기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도 2학기에 박사 학위 논문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 박사 학위 논문 심사위원이셨고 의국 선배님이신 장석우 교수님께서 2016년 1월에 경희대 치과병원 보존과에 전임직으로 근무할 생각이 있다고 물어보셨고 급작스럽게 결정하여서 2016년 3월부터 경희대 치과병원에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직에 근무하다가 개원하는 경우는 좀 더 찾아볼 수 있어도 개원가에서 근무하다가

공직으로 옮기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향후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가 더 편하거나 금전적으로 유리한지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그 일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즐거움을 느끼는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분야** 치과보존학은 보존 수복학과 근관 치료학으로 나누어지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근관 치료학 전공입니다. 근관 치료 분야는 많은 기구와 재료들이 발전해왔고 계속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근관 치료에 이용되는 진료 기구와 충전 재료 등에 대해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관 내부를 확대하고 성형하는 데 이용되는 nickel-titanium 전동 파일(Ni-Ti file)은 transportation과 같은 오류를 줄여주고 근관 확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편리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만약 곡이 심한 근관에서 이용하면 만곡 안쪽 방향에서는 Ni-Ti file에 압축력이 가해지고 만곡 바깥쪽에는 Ni-Ti file에 인장력이 가해져서 굽힘 파절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한편, 근관 성형의 초기 단계에서 석회화된 근관, 즉 내부의 직경이 좁은 근관에 Ni-Ti file을 적용하면 file의 가느다란 tip 부위는 근관 내부에 꽂아 끼어있는데 핸드피스는 회전하는 경우 비틀림 파절이 초래됩니다. 일반적으로 Ni-Ti file의 직경이 크면 비틀림 파절에는 저항성이 높은 반면 굽힘 파절에는 저항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환자의 치아를 근관 치료할 때 Ni-Ti file이 파절되는 경우 기존에 치근단 병소가 있었던 치아라면 예후가 불량하게 되므로 치료 도중 Ni-Ti file이 파절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여야 합니다. 실험실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Ni-Ti file에 대해서 굽힘 파절 저항성을 평가하여 비교하기 위해 만곡된 형

태의 인공 근관에 Ni-Ti file을 위치시킨 후 실제 사용할 때의 속도로 회전시켜 파절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합니다. 만곡 조건이나 인공 근관의 형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표준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실험실에서 Ni-Ti file의 비틀림 파절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ISO 3630-1의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K-file과 같은 수동 파일의 비틀림 파절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기준입니다. Ni-Ti file의 손잡이 부분을 토크테스터 상부에서 고정하고 Ni-Ti file의 끝 (tip) 부위는 토크테스터 하부에서 고정하여 토크테스터의 상부를 file의 삭제 방향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2rpm의 속도로 회전시켜 파절될 때까지 회전한 각도와 파절될 때의 최대 응력을 측정합니다.



저는 보존과 레지던트로 수련 받을 때에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Ni-Ti file의 굽힘 파절 저항성을 평가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까지의 연구에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다른 디자인을 가진 Ni-Ti file,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열처리 공정을 적용한 Ni-Ti file의 굽힘 파절 저항성과 비틀림 파절 저항성에 대해 탐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실험실 연구는 실제 근관 치료의 임상과는 연관성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실험실에서는 Ni-Ti file의 굽힘 파절 저항성을 평가하는 경우 Ni-Ti file이 근관 벽에 꽂아 끼이지 않은 자유로운 조건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틀림 파절 저항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Ni-Ti file의 tip을 토크테스터 하부에서 꽂고 있는데 Ni-Ti file이 직선으로 쭉 뻗어있는 형태로 실험합니다. 하지만 실제 근관 치료에서는 근관이 어느 정도 만곡되어 있으면서 Ni-Ti file의 일부가 근관 벽에 꽂아 끼인 상황을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Ni-Ti file의 굽힘 파절 저항성, 비틀림 파절 저항성을 평가할 때 실제 근관 치료와 연관성이 높은 평가 방법으로 실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하려는 연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전공의 신분으로 치과병원에서 수련 받았던 시기 그리고 학부 및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수업을 들었던 때를 생각해보면 어려운 증례 환자를 의뢰했을 때 교수님께서 맡아 주셨던 것, 근사하고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사 주

셨던 것 모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과 경험, 연구자로서의 태도를 전수해주시려고 한 가르침을 받은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제일 감사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어떻게 하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애쓰는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면통증구강내과학 교실 이연희 교수**



**본인소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안면통증구강내과학 교실 이연희 교수입니다. 2020년 경희대학교 교수 임용이 되었고, 신입교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 약력을 소개하자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인턴 과정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였고, 학사와

석사, 박사도 동 대학에서 취득하였습니다. 경희대학교와의 인연은 2015년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전임의로 시작하였습니다. 전임의로서 2년, 임상조교수로서 3년 이상의 기간을 지냈습니다. 경희대학교 교수로서 한 분야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구강내과 분야를 선택하게 된 것은 운명에 가깝습니다. 3학년 병원 실습이 시작되고 구강내과 턱을 돌면서 이 분야를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구강내과에서 행해지는 안면통증을 분류, 진단, 치료하는 과정이 순수하게 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학생시절 구강내과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3학년 2학기때 전공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좋은 스승님과 주변분들 덕분에 저는 흥미를 지속해 가지면서 깊이 있게 파고들었고, 결국은 전공을 하여 교수까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턴시절, 제가 탔었던 차를 폐차할 정도로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기적적으로 멀쩡한 몸을 확인하고 구강내과를 전공하고 좀 더 연구해 보라고 인생이 연장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공과정과 그 후 몇 년간 여러 국내 학회와 국제학회를 다니고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또 해외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구강내과 분야 발전에 더욱 기여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고등학교시절 문학선생님은 은유법 수업에서 저에게 '바위'라는 별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우직하게 항상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언젠가는 크게 쓰일 사람이라고 말씀해주신 것이 아직도 저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저는 운동하는 것을 즐깁니다.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바탕으로 추진력 있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임용 전 활동사항이나 경력·경험** 학문 분야가 자리잡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회(學會)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학회는 연구자들이 각자의 연구성과 발표의 장을 제공하고 업무와 연구자 간의 교류 등의 역할도 담당하며 학문을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7년 임상조교수 시절부터 전공에 관련된 학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맡은 이사직은 대한치과수면학회 총무간사로 (2017년), 학회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이었으며, 현재는 해당 학회의 공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치과 주요분과학회인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에서 2018년부터 2년간 공보이사를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의 치과의 사협회인 국제치과연구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 IADR)의 정회원으로, 턱관절 장애 및 안면통증에 관한 세부 학회인 InFORM의 회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매해 이 학회에서 연구 성과와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처음 참여했던 2016년도에 헤튼상을 수상하여 2017년도 영국에서 개최된 IADR에 한국대표로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IADR의 한국지부(KADR)의 편집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의 교육이사를 맡고 있으며, 2019년 12월 개최된 학회의 경연에서 제가 지도했던 경희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학생들이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한 기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것이 재미있고, 제 연구가 공식적으로 보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논문으로 출판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 연구로 세계 연구자들의 인정을 받아가는 중이며 Oral Diseases나 BMC Oral health와 같은 세계적 저널의 리뷰어로도 활동 중입니다. 또한, 한국 치과의 사협회지인 치의신보에 수필과 시론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연구와 앞으로의 연구분야 소개** 구강내과는 다양한 세부 분야를 가집니다. 가장 흥미있는 주제는 턱관절 장애

(temporomandibular disorder, TMD)입니다. 저는 외래에서 턱관절 장애 환자를 가장 많이 만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이 환자군의 진단과 치료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면통증의 원인에 따른 치료가 되어야 올바른 치료라고 생각하여, 원인과 질환 진행의 분석을 깊게 해보는 중입니다. 청소년기 특발성 턱관절 장애, 거대 외상에 의한 턱관절 및 주변 근육의 변화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 연구하였고, 관련한 여러 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정확한 턱관절 진단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파노라마 영상, CBCT, bone scan, MRI를 포함한 여러 이미징 기법들을 이용하여 객관적 질환 진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수면과 통증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와 혈액검사, portable PSG를 이용한 연구도 진행 중이며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치의학 분야에서는 직접 측정법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를 이용한 연령추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취 및 입마름증 등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범위를 넘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교육에 대한 철학** 가르침의 길목을 지키는 교수가 되어 제가 가졌던 물음은 과연 가르친다는 것,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4차산업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한 세상에 각종 교수 매체가 발달했지만, 배우는 사람의 지적 호기심을 처음 유발시키는 것은 아직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치과대학에 온 학생들,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구강내과, 치의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 해주고, 그들이 학문을 즐기는 삶을 살수 있도록 '안내' 해 주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전달한 무엇인가가 그들의 행복과 성장에 자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서 학생 이름 외우기부터 시작하여 학생에게 애정을 가지고 소통하기, 학생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학생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기, 재미있고 집중이 되는 강의하기, 지속적인 연구하기, 행정 참여하기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신임교원으로써의 각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은 저의 좌우명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집니다. 교수라는 새로운 조건에서 긍정적인 마음 가짐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저는 구강내과와 치의학 분야의 발전에 평생 이바지하며, 학생들의 가슴속에 남는 훌륭한 스승이 되고 싶습니다. 병원과 학교의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연구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문회 소식 및 경조사 (2019.11.-2021.02.)

동창회 이사회 동정

2019년

- 11.06. 2019회계연도 감사 및 고문단회의  
장소 : 이상갈비 (답십리)  
참석 : 마경화감사, 안민호회장, 최대영부회장, 조선경부회장, 최재용총무, 윤종상재무, 김정현재무간사, 김소현친교, 고문단
- 11.27. 제 48차 정기총회  
장소 : 동보성  
정기총회(회무, 결산 및 감사보고, 정진 신입회장 선출) 및 장학금 수여식
- 12.06. 인천동문회 방문  
참석 : 정진회장
- 12.11. 동창회, 병원장, 학장 및 48회 졸업생 간담회  
장소 : 경희시대 학장실  
참석 : 정진회장, 윤종상부회장, 김소현총무, 김정현재무, 황의환병원장, 권공록학장, 어규식부학장, 권영대교수, 박기호교수, 김경아교수, 48회 권윤중, 류재하학생
- 12.13. 총무 재무 인수인계식  
장소 : 황소고집  
참석 : 최재용부회장, 윤종상부회장, 김소현총무, 김정현재무

2020년

- 01.08. 경희대 신년교례회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참석 : 정진회장, 조선경부회장, 윤종상부회장, 김정현재무 (수상-조선경)
- 01.15. 국가고시 시험장 격려방문  
장소 : 용산공고  
참석 : 정진회장, 박관수부회장, 윤종상부회장, 김소현총무, 김정현재무, 권공록학장등 교수
- 01.16.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동창회 임회식 (졸업...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소 : 더리센즈동대문호텔  
참석 : 회장단, 임원, 교수, 졸업생등 67명 (연자 : 후보훈, 안지환)
- 01.17. 고문단회의  
장소 : 서초대원  
참석 : 정진회장, 정재규, 김성욱, 정철민, 홍정표, 김세영, 나궁균, 안민호, 김소현총무

- 02.15. 이상훈 치협회장 선거사무소 방문  
참석 : 정진회장, 김소현총무, 김정현재무
- 02.17. 장영준 치협회장 선거사무소 방문  
참석 : 정진회장, 김소현총무, 김정현재무
- 02.19. 경희대 치전원 졸업식(코로나19로 약식진행)  
참석 : 정진회장
- 03.17. 이상훈 당선자 축하방문  
참석 : 정진회장
- 04.03. 제1차 운영위원회  
장소 : 대도식당(강남대로점)  
참석 : 정진회장, 김소현총무, 후보훈부회장, 최대영부회장, 최형수부회장, 박관수부회장, 윤종상부회장, 김정현재무, 김수진, 양성현, 김홍석, 함동선, 강호덕
- 04.09. 서여치 총회 (20회 정혜전 회장취임) 축하금만 전달
- 04.23. 대여치 총회 (18회 이민정 회장취임)  
참석 : 정진회장, 김소현총무
- 04.24. 발전기금 관리 및 발전추진위원회 회의  
장소 : 경희시대 학장실  
참석 : 정진회장, 최대영부회장, 김소현총무, 황의환병원장, 권공록학장, 어규식부학장, 지유진강동병원장, 권영대교수, 노관태교수, 김정엽학생회장
- 05.15. 스승의 날 관련 대학방문  
장소 : 경희시대 학장실  
참석 : 정진회장, 윤종상부회장, 김소현총무, 어규식부학장, 권영대교수, 배아란교수
- 05.25. 2020 초도이사회  
장소 : 명동 동보성  
토의안건  
1) 2020 회계연도 일정 로드맵  
2) 동창회 밴드 활성화  
3) 시텍스 동창회 부스 운영  
4) 동창회 골프대회  
5) 동창회 학술대회  
6) 동창회 장학기금  
참석 : 정진회장, 정재규, 정철민, 김세영, 최중우, 전성근, 정순준, 박능석, 박영주, 정병선, 박인호, 최대영, 김미경, 전양현, 김방수, 최형수, 이민정, 이상훈, 윤종상, 김태진, 김소현, 김정현, 김수진, 양성현, 김홍석, 강정호, 함동선, 권태훈, 정기훈, 최재영,



이순임, 홍종현, 강호덕, 창동욱, 이학연,  
황의환병원장, 권궁록학장님, 홍정표, 어규식,  
권용대, 최성철, 배아란, 김정아 교수 (총 43명)

**06.03. 골프대회 준비 실무위원회**

장소 : 아루일식

참석 : 정진회장, 김소현총무, 함동선, 강호덕

**06.11. 경희치대 여동문회 오프라인 소모임**

장소 : 토즈(신반포점)

참석 : 김소현총무, 김정현재무

**경희치대 제주지부 동창회총회**

장소 : 노형 한우프라자

참석 : 정진회장, 정순준부회장

**06.14. 동창회 운영위원회 골프대회**

장소 : 서원밸리 C.C.

참석 : 정진회장, 주보훈, 최대영, 박관수, 최형수,  
김소현, 김정현, 김수진, 김홍석, 강정호,  
함동선, 강호덕

**07.14. 본과 4학년 간담회**

장소 : 샹그라(경희대 앞)

참석 : 정진회장, 윤종상부회장, 김소현총무,  
김정현재무, 구준영(총학생대표),  
이재원(졸업준비위원장), 한준현(과대표),  
김승민(부과대표)

**07.19. 2020 동창회 골프대회 답사**

장소 : 이천 실크밸리CC

참석 : 김소현총무, 김정현재무, 함동선, 강호덕

**07.20. 경희치대 신입 학장 및 보직교수 간담회**

장소 : 베이징코야

참석 : 정진회장, 윤종상부회장, 김소현총무,  
김정현재무, 정종혁학장, 배아란교무부학장,  
권용대연구부학장, 최병준치의학과장,  
신승일대의협력실장, 김규태국제교류실장

**08.11. 발전기금 관리 및 발전추진위원회 회의**

장소 : 경희대학교 학장실

참석 : 정진회장, 최대영부회장, 김소현총무,  
황의환병원장, 정종혁학장, 배아란부학장,  
신승일교수, 김경엽학생회장

**08.30. 경희치대 동창회 비대면골프대회**

장소 : 이천 실크밸리C.C.

참석 : 동문 64명

**09.28. 골프대회 평가회**

장소 : 한일관(압구정점)

참석 : 정진회장, 김소현총무, 김정현재무, 함동선이사

**10.16. 학생 간담회(본과 4학년, 2학년)**

장소 : 샹그라(경희대 앞)

참석 : 정진회장, 박관수부회장, 김소현총무,  
김정현재무, 구준영(총학생대표),  
이재원(졸업준비위원장), 한준현(과대표),  
김승민(부과대표), 김성엽(학생회장),  
김중엽(부학생회장), 박인화(총무)

**10.18. 경여치 골프대회**

장소 : 윈체스트 C.C.

참석 : 정진회장, 김소현총무, 김정현재무

**10.22. 제2차 운영위원회**

장소 : 한일관(압구정)

참석 : 정진회장, 최대영부회장, 박관수부회장,  
윤종상부회장, 김미경부회장, 김소현총무,  
김정현재무, 양성현, 김수진, 함동선, 강호덕이사  
(특참-정종혁학장)

**10.27. 동창회 회장단과 서치, 경치, 인치 동문임원 간담회**

장소 : 한일관(압구정)

참석 : 정진회장, 김소현총무, 김정현재무, 김덕,  
서두교, 강호덕, 홍종현, 조성근, 최유성,  
이순임, 조영욱, 강정호

**동창회원 조사/경사**

**2019년**

- 12. 07. 21기 김경화 모친상 평촌 한림대병원 장례식장
- 12. 12. 23기 박순정 시모상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 12. 16. 21기 라기욱 모친상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 12. 23. 20기 김규남 부친상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 12. 25. 21기 노상호 부친상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 12. 27. 17기 이영준 빙모상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2020년**

- 01. 01. 11기 백영완 부친상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 01. 13. 15기 김성미 모친상 일산복음병원 장례식장
- 01. 16. 15기 오인중 부친상 대전성심병원 장례식장
- 01. 20. 이상래 빙모상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 01. 22. 24기 권태훈 모친상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 01. 29. 5기 김용구 모친상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 02. 02. 21기 고광민 모친상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 02. 19. 18기 정형근 모친상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 02. 24. 25기 이은준 모친상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 02. 24. 27기 이계복 빙부상 설악원 경기 장례식장
- 02. 25. 16기 김경준 빙모상 광주광역시 구호전 장례식장
- 02. 25. 16기 이정준 모친상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 03. 09. 16기 김호진 부친상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 03. 19. 23기 김형석 모친상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 03. 21. 15기 지정호 빙부상 한일병원(도봉구) 장례식장
- 03. 29. 11기 김선욱 모친상 이대서울병원(발산동) 장례식장
- 03. 31. 6기 한만형 장모상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 04. 05. 8기 정 훈 모친상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 04. 09. 19기 한수희 장인상 안심병원 장례식장
- 04. 10. 18기 이경은 모친상 문경장례식장
- 04. 14. 20기 박정일 모친상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 04. 16. 4기 김재수 본인상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 04. 20. 13기 안정보 부친상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 04. 20. 24기 정새별 모친상 중앙대부속병원 장례식장
- 04. 20. 24기 함동선 빙모상
- 04. 23. 23기 박성준 모친상 광주시 금호장례식장
- 04. 30. 15기 오인중 빙모상 전남 화순 고려병원 장례식장
- 05. 02. 14기 조준영 모친상 포항 성모병원 장례식장
- 05. 03. 14기 김정우 모친상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 05. 04. 32기 조동일 부친,모친상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 05. 12. 22기 허기희 빙모상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 05. 22. 23기 홍성준 빙모상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 05. 22. 17기 서남영 모친상 검단 탐병원 장례식장
- 06. 08. 21기 조정근 모친상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 06. 09. 29기 방태훈 모친상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 06. 10. 17기 변현홍 빙모상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 07. 01. 19기 김란아 부친상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 07. 06. 21기 김현아 부친상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 07. 06. 15기 이호 모친상 평택중앙 장례식장
- 07. 30. 24기 권용대 부친상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 08. 06. 17기 유하균 빙모상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 08. 07. 17기 김용택 모친상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 08. 10. 25기 김두하 부친상 대구전문 장례식장
- 08. 13. 21기 최인식 모친상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 08. 13. 22기 최용석 빙부상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 08. 22. 20기 이후창 부친상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 08. 27. 16기 송승훈 부친상 원광대병원 장례식장
- 09. 13. 8기 신동진 빙모상 전주모악장례문화원
- 09. 23. 9기 이근혁 빙모상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 09. 24. 8기 남승희 본인상 국립중앙의료원
- 09. 28. 8기 이근택 부친상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 10. 04. 16기 이남호 빙모상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 10. 05. 8기 김경선 시부상 고려대병원 장례식장
- 10. 07. 36기 윤지영 시부상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 10. 10. 18기 최진근 모친상 일산 백병원 장례식장
- 10. 15. 7기 조진호 모친상 부산전문장례식장
- 10. 22. 22기 류중균 모친상 통영서울병원
- 10. 24. 12기 김교철 부친상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 10. 25. 17기 김민성 모친상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 10. 27. 15기 허영호 모친상 고양시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 11. 01. 22기 조민구 부친상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 11. 05. 24기 김성훈 부친상 광주조선대병원 장례식장
- 11. 07. 9기 이한주 부친상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 11. 11. 2기 정재규 빙모상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 11. 13. 20기 김정현 빙부상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동창회원 근황**

**2020년**

- 03. 23. 18기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당선 축하 난
- 04. 06. 10기 서석성 금천구회장 취임 축하 난
- 04. 06. 20기 김소현 은평구회장 취임 축하 난
- 04. 06. 25기 지동욱 성북구회장 취임 축하 난
- 04. 06. 26기 송재혁 동대문구회장 취임 축하 난
- 04. 06. 33기 최성호 강동구회장 취임 축하 난
- 04. 08. 15기 정순준 고양시치과의사회장 취임 축하 난
- 04. 08. 24기 장주환 안산시치과의사회장 취임 축하 난
- 04. 08. 25기 오정란 과천시치과의사회장 취임 축하 난
- 04. 08. 26기 유광익 화성시치과의사회장 취임 축하 난

발전기금 입금 (2021.02.28 기준)

<b>1억원 이상</b>	권규상 이창진 안영자 허정욱 (주)덴티움 (주)신흥(주)오스템임플란트 우가주치과병원 치과대학15기동문회
<b>7천만원 이상</b>	곽약훈 김은철 김학찬(센트럴청원치과의원) (주)비스코덴탈아시아 사회복지덕영재단 재단법인 신흥연승학술재단
<b>5천만원 이상</b>	박창건·유성희 이재광 시카고치과병원 치과대학동문회(지준수 외)
<b>3천만원 이상</b>	김희성 신용범 전요한 정성민 (주)모르페우스 (주)자-씨 코리아 굿월치과병원덕천 굿월치과병원하단 김성기치과 닥터유부부치과 사회복지법인건아재단 입구정 사랑의치과의원 치과대학 대전지역동문회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치과대학16기동문회 치과대학23기동문회 치과대학24기동문회 치과대학28기동문회
<b>2천만원 이상</b>	고광수 고철수 권영혁 김영석 김용래 김 은 류동목 문정기 박영국 박준봉 이근혁 이영욱 정극모 최병기 홍성준 (주)에냥아이앤씨 경희대학교 치주과학교실동문회 경희치과병원 미치과교정과 치과의원 참조은치과병원 치과대학7기동문회
<b>1천만원 이상</b>	공희정 권극록 김경선 김광철 김규남 김민성 김성욱 김승윤 김여갑 김영훈 김용준 김임남 김재원 나성식 박능석 박양제 박주연 박태용 배아란 백두흠 변 옥 서광원 송국현 송요선 송창준 신재원 신한식 오구환 오우대학 오우식 유영선 유재홍 이광설 이규원 이기수 이두희 이상혁 이상복 이영희 이 윤 이진용 이창규 이철원 이한우 이현우 장상건 장지현 조영욱 최대균 최영철 최효영 한만형 한정희 허 익 홍동희 홍선희 황의환 (주)악어미디어 굿월치과병원서면 대한치과의사협회 경기지부(경기도치과의사회) 미주치과의원 이앤장치과 조종만(베스필치과의원) 최재영치과의원 치과대학 수원지역동문회 치과대학2기동문회 치과대학3기동문회 치과대학9기동문회 치과대학1기동문회 치과대학22기동문회 치과대학26기동문회 치과대학27기동문회 치과대학2기동문회 치과대학3기동문회 치과대학5기동문회 치과대학6기동문회 치과대학9기동문회 큐플란트치과 태평플러스치과의원 티플러스치과의원 현대치과의원
<b>5백 이상</b>	고광준 권일근 권태훈 김기태 김미경 김상일 김석훈 김선영 김세영 김수철 김영진 김인화 김판식 김필수 김항경 김형섭 김형찬 박기범 박도양 박승훈 박용덕 박재홍 박태용 박호정 박희경 백동준 신 명 안근국 안민호 양승춘 어규식 염상국 우이형 윤옥병 이건주 이명성 이상호 이원화 이인석 이종태 이주석 임호남 장근택 전진학 정규림 정색별 정용식 조재오 조준영 조해성 지정호 지찬동 최규규 최근락 최기운 최상호 최성백 최용석 최호근 한용환 허성운 황재상 경희치대동창회 김옥진치과 대한치주과학회 홍보기획위원 시엘에프기공소 양평하나로치과의원 예은치과의원 우리치과 최신치과 평화치과 화인치과병원
<b>3백 이상</b>	강기현 강승훈 강윤구 강한중 고봉진 구한미 권균원 권순용 권용대 김경연 김남준 김달하 김 덕 김덕수 김동호 김보혜 김선규 김성용 김성환 김규현 김소현 김우찬 김윤홍 김정희 김중환 김진철 김진호 김현혜 김형남 김형진 김호중 김홍희 김상욱 남상욱 마경화 오수엽 문형욱 민병순 박기호 박남수 박노희 박동진 박동호 박미애 박상진 박상혁 박성동 박수배 박영주 박희찬 방재범 백영안 백중은 부용철 성나도 손세일 손원영 손일수 신민철 신민호 신원웅 신의중 신기동 안현준 안희진 오범수 오병섭 오성산 오승교 오창근 오화탁 우정석 우택호 우형식 유석규 유신종 유용균 유충현 유형열 윤경도 윤덕상 윤인종 이건욱 이건중 이광희 이규용 이근하 이동식 이백수 이상래 이상천 이상태 이석원 이수연 이수인 이수현 이승훈 이영준 이용호 이재천 이진표 이정재 임성빈 임성수 임순빈 임인학 장봉렬 장성진 장우익 장희웅 전양현 정동진 정연식 정운봉 정재규 정중혁 정창권 정 철 정철민 정형주 제한봉 조남성 조민구 조병도 조세중 조세형 조인교 조정근 조태희 조한국 조호구 주성환 주성숙 지유진 천강정 최병환 최부병 최유진 최재영 최재혁 최정규 최현수 한승완 한 훈 홍성태 홍영안 홍정표 황진욱 권호진치과의원 그랑 치과 교정과 치과의원 김명환치과의원 김정수 치과의원 노벨치과의원 뉴욕바른라인치과의원 더바른이치과교정치과의원 동산치과의원 미담치과의원 미소누리치과의원 바른이만들기치과교정과치과의원 바른이바른얼굴 치과교정과 바이란트치과 오승훈치과의원 우암치과의원 유니온치과의원 이지원치과교정과치과의원 이치과의원 조재민치과의원 주)자영메디칼 중동네이버치과의원 중앙치과의원 최병기치과의원 파나소닉코리아주식회사 행복삼은오치과 허지과의원 홍선생 치과교정과 치과의원
<b>1백 이상</b>	강기현 강남현 강백면 강수경 강정백 고병용 고진환 고천석 공선식 곽춘길 구분룡 구 영 구자룡 구재우 권기열 권수갑 기대석 길경미 길종선 김경아 김경아2 김경용 김경준 김광휘 김귀원 김기문 김도완 김동기 김동환 김명진 김문기 김미경 김미선 김방수 김봉현 김상석 김석용 김선미 김선욱 김선호 김선희 김성길 김성민 김성진 김성철 김세일 김수강 김수진 김승준 김영일 김영찬 김옥련 김옥현 김은 김용구 김원경2 김원경2 김원진 김인곤 김인수 김재구 김재승 김재우 김재일 김재철 김정목 김정우 김중규 김중하 김중호 김중중 김지영 김지태 김진호 김철중 김춘진 김태형 김택창 김해근 김혁수 김현호 김형석 김혜경 김호진 김홍광 김홍기 김희중 나근균 나중일 나태돈 남병우 남욱형 남재형 노관태 노대현 노영익 노은희 류경희 류중균 류호철 류 훈 문민연 문수인 문용환 문재룡 문항진 민경식 민선희 민호기 박동원 박두중 박병걸 박병욱 박봉규 박상훈 박석범 박선영 박선희 박성근 박성원 박송이 박수진 박순건 박순정 박영수 박은기 박인호 박일해 박재석 박재현 박정선 박정용 박정호 박지원 박진우 박창진 박철제 박철성 박한수 박 현 박현석 배영수 백상규 백경걸 백장현 백현준 변태진 사영철 서경수 서남영 서영문 서윤원 성락진 소용섭 손신영 송민재 송윤현 송은면 송재만 송재선 신동진 신동구 신동진 신승원 신영림 신현택 안광남 안광식 안수진 안은영 안장원 안효원 양경돈 어수철 엄영호 오세웅 오세윤 오승환 오정진 오정환 오주영 오충영 오현미 원미영 원현두 유경민 유선렬 유용조 유인영 유주현 유희승 윤동호 윤두근 윤민의 윤석우 윤원자 윤창구 윤형진 이공훈 이광재 이교용 이규찬 이근호 이남호 이동규 이만섭 이미경 이병국 이병도 이병태 이상복 이상은 이상주 이상철 이상훈 이상만 이상철 이세중 이세준 이승춘 이승택 이영규 이영근 이영석 이영식 이완규 이용찬 이용호 이우석 이원섭 이은준 이을재 이인석 이재학 이재홍 이정민 이정열 이정현 이종규 이종인 이준열 이재숙 이천복 이충복 이태수 이태호 이필제 이혜송 이 호 이화연 이효실 이흥기 이희정 임기효 임상수 임중성 임천택 임태수 임호섭 임홍재 장미정 장수일 장원준 장정태 장지현 장철민 장현주 장 훈 전석열 전성근 전영신 전정환 전천덕 정관희 정대현 정도영 정미현 정선모 정용복 정인교 정중만 정주성 정준호 정지향 정형근 정희일 조경환 조동석 조민우 조성국 조성열 조승제 조영진 조의현 조진영 조진호 지준순 진택현 차덕선 채영원 천무철 최근준 최대영 최병애 최병준 최상돈 최성철 최수형 최승규 최승현 최연석 최영범 최원재 최인식 최정윤 최중우

최종설 최진웅 최호수 최효영 최홍석 하대주 하지양 한기림 한기협 한동호 한문식 한봉석 한창규 한혜숙 한휘철 허정선 현원섭 홍진표 홍해룡 홍호철 황용구 황정환 (주)광우메디스 KDI치과의원 강동가람치과의원 경희치과의원 광명리빙힐치과의원 광산치과의원 구미공단예치과병원 구치과의원 김병우 치과 김윤희치과의원 김형진치과의원 남포치과의원 뉴욕 BNS 치과의원 뉴욕치과 닥터번치과의원 대한구강안면임플란트학회 드림빌딩(서남영) 명천가정의원 모아치과병원 박기범치과의원 박대진치과의원 박상현치과의원 박선치과 발안치과 부평청원치과 사람인치과의원 상이치과의원 서산예치과 서울다인치과의원 서울현대치과의원 세영치과의원 센트럴치과의원 송도드림치과의원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신혜련 신치과 엄인석치과 에이원치과의원 연산치과의원 연세치과의원 오병호치과의원 용치과의원 웰나드치과의원 유니온아이치과의원 유태치과의원 윤석우치과의원 윤인택치과의원 이봉훈치과 이상호 치과의원 이원준치과의원 이튼치과 이희정치과 일산예치과 임길웅치과의원 장영빈치과의원 장치과의원 전치과의원 정연진치과의원 조은수치과의원 종로치과의원 주안청원치과 청구치과 청담뷰치과의원 청원치과의원 최완침치과의원 최천영치과의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학교실 전공의 일동 큐치과의원 큐프라임인하치과 푸른하늘치과 허버드림치과의원 하얀미소치과 하정상 치과 한마음치과의원 한수치과의원 한용환치과의원 함께하는 치과

**1백 미만**

강대인 강승구 강은정 강주성 강칠규 강해성 고건호 고수진 고영훈 고일혁 고창배 고 현 공순현 곽용훈 곽호정 구중희 권구현 권정은 금구석 금미연 김경준 김광식 김교철 김기철 김남구 김남중 김동현 김 령 김명섭 김미경 김보균 김보라 김보선 김복래 김봉준 김상균 김상우 김성원 김성일 김세일 김소영 김수환 김승일 김승일2 김시석 김시원 김안철 김영기 김영득 김영민 김영택 김원경 김윤희 김은정 김이철 김인철 김일환 김장욱 김재수 김종업 김중현 김준현 김지수 김진우 김철순 김태선 김태연 김태열 김태진 김학동 김현경2 김현경2 김해란 김혜정 김희광 노성준 노희정 류길주 류창수 류호경 류덕진 목지은 문영훈 문희현 민경민 민관순 박건호 박경아 박경일 박금출 박기헌 박상규1 박상규2 박상규3 박상규1 박상규2 박성준 박용순 박용호 박원규 박인숙 박재춘 박준섭 박준수 박지혜 박지희 박창훈 박철우 박춘배 박현욱 박호영 반대환 배기창 배일환 배한익 백기현 백종욱 백준호 백 진 백효찬 변현홍 서경성 서두교 서영훈 서재승 서찬호 성영주 손민지 송성국 송영보 송은주 송재혁 신강섭 신동렬 신용문 신일철 신재창 신정희 신중호 안휘용 양광모 엄찬용 오나희 오문영 오유리 오재권 오정란 오현주 우승철 위진욱 유광익 유대영 유삼혁 유지훈 유하균 윤병욱 윤여진 윤용섭 윤원용 윤종일 윤혜영 이경숙 이극규 이대승 이동현 이수미 이수영 이수욱 이수인 이수규 이승엽 이시원 이연수 이연신 이영훈 이영희 이원철 이정욱 이정행 이정호 이종식 이지민 이지혜 이창진1 이창진2 이하형 이한주1 이한주2 이현우 이현경 이현식 이혜영 이호현 이희정 임경석 임계수 임병진 임용호 장영명 장영배 장우혁 장윤성 장주환 전성진 정민수 정성진 정수봉 정영진 정용규 정의산 정인영 조규석 조상원 조성일 조성천 조영주 조운숙 조인숙 조종문 주용진 주효진 지상진 진대현 최동훈 최문철 최성연 최승모 최영심 최준규 최창규 최현용 최효영 최희철 하지용 한동석 한동인 한무현 한성규 한수희 한지영 함동선 허 정 홍정아 황선달 황유숙 황윤태 황의관 황형주 황혜욱 (사)대한턱관절학회 4월31일치과 강남현대치과 계산청원치과의원 골드치과 굿월치과병원 그린치과 기독교 노치과의원 뉴욕가이드치과 뉴욕치과 뉴욕치과의원 다정한치과 더나은치과 덕수치과 르네상스치과 모마치과 미건치과의원 미래치과 미소가 밝은치과의원 미소시티치과의원 미소씨티치과의원 미주치과의원 바른이치과 백이부부치과 부부미치과 부일치과 분당뉴욕치과 산본나린이치과 서울삼성내과 서울채움치과 서인천뉴욕치과 석치과의원 성모치과 세종고은이치과의원 센트럴치과 송림치과의원 스포츠치의학연구소 신기치과 신세계청원치과의원 아이비치과 안양사과나무치과 입구정공릉치과 양영총치과 에이플러스치과의원 연수준치과의원 예인치과 우리치과 은혜부부치과 이경훈치과 이로운치과 이재준치과 이즈치과 이채동치과의원 인치과 자연미소치과 정동진치과 정발산사과나무치과 정성욱치과 제일부부치과 지동욱치과 진해애플치과 참조은치과1 참조은치과2 청담부부치과의원 최귀현치과 최창규치과의원 치과대학1화출업생일동 토론토 치과 포항이살림치과 프랜드치과의원 하얀새론니치과 한재형치과 행복치과 허브치과의원 현대 치과 현대치과의원 힐링치과
--

(2020.03.01 ~ 2021.02.28 기준)

<b>1억원 이상</b>	우가주치과병원
<b>3천만원 이상</b>	재단법인 신흥연승학술재단 치과대학28기동문회
<b>2천만원 이상</b>	김학찬(센트럴청원치과의원) 오스템임플란트(주)
<b>1천만원 이상</b>	김재원 류동목 박준봉 송국현 송창준 유재홍 이영희 이창규 홍동희 홍성준 (주)덴티움 참조은치과병원 치과대학27기동문회 티플러스치과의원
<b>5백 이상</b>	배아란 이근혁 이인석 이주석 정색별 지정호 경희대학교 치주과학교실동문회 대한치주과학회 홍보기획위원
<b>3백 이상</b>	문형욱 이근하 이수현 (주)에냥아이앤씨
<b>1백 이상</b>	구 영 권일근 김승준 남상욱 박능석 박선희 소용섭 신승윤 염상국 정극모 정준호 조세형 조종만 한용환 (주)광우메디스 예은치과의원 주)자영메디칼
<b>1백 미만</b>	김태진 민경민 윤형진 이현식 이현우 김성기치과 허브치과의원

**경희 100 GLOBAL TRUST 캠페인**

경희의 탁월성 확보와 공공성 제고, 일반시민의 경희를 통한 공적 실천 실현을 위한 범경희적 성금 캠페인 GLOBAL TRUST가 경희 70주년을 맞이하여 '경희 100 GLOBAL TRUST'로 재도약합니다.

경희 100 GLOBAL TRUST 캠페인은 진정성 있는 진리 탐구를 통한 범 지구적 책무 실현이라는 GLOBAL TRUST의 사명과 비전을 경희 100년이 되는 해인 2049년까지 실현하고자 재도약하는 거öger적 성금캠페인입니다. 많은 동문의 관심 부탁드립니다.